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22일) 2018년 2월 7일 수요일

PyeongChang 2018
D-2

평화올림픽 성공, 불교가 뛴다

중앙신도회 선언문 발표, 성화봉송 · 자원봉사 등 나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불자들이 나섰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평화올림픽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3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올림픽 응원 동참을 독려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에 세 번 도전해 20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북한이 동참해 호흡하고 있다. 민족의 대제전이 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후속 작업으로 중앙신도회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각 사찰 신도들과 스님들의 관전을 이끌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도 다시금 펼쳐져 평화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간다. 2017년 열린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2만 수보리의 합창'은 사찰 333곳에서 2만 3000여 명이 참여해 우중에도 금강경을 독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올해는 4월 26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금강경 독송정진과 함께 '월인천강지곡'에 담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낸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500여개 모금소가 운영된다.

사찰서 평화기원법회, 성화 봉송도

전국의 각 사찰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먼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2월 3일 해운정사서 열린 신년특별법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신년특별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29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을 앞두고 구슬땀 흘리는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설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표 스님들은 2월 14일 평창에서 경기 관람 및 응원전도 펼칠 예정이다.

강원 지역 불자들의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성화 봉송도 이어진다. 개막일인 2월 9일 정오에는 평창의 대표적인 한국전통문화 산실인 월정사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된다. 독일 前피겨선수 카타리나 비트가 월정사 일주문에서 팔각구층석탑까지 성화를 봉송한 후 경기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개막 전날인 2월 8일에는 강릉사암연합회 청우 스님이 강릉지역에서 성화봉송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1월 27일 양양 낙산사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됐다. 금곡 스님이 낙산사 해수관음사상에서 성화 봉송 후 3명의 주자가 원통보전과 보타전을 거쳐 의상대까지 성화를 봉송했다.

불교 평화사상, 외국인들에게 알린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낙산사, 백담사, 삼화사, 신흥사, 월정사에서 외국인특별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는 동반1인 포함 80%가 할인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들 사찰에서는 1년 후 받아볼 수 있는 '느린우체통'을 비롯해 숲길 포행, 발우공양 체험 등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도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원지역에서는 올림픽 기간 불자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진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와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강원지역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전상웅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장은 "IOC 방침으로 올림픽 경기장에 종교부스 설치가 무산됐지만,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평화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리는 만큼, 불교 자비와 평화사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5면〉



심석희 위로한 큰스님 한마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코치의 폭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컸던 여자쇼트트랙 심석희 국가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큰스님이 진천선수촌에 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29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 국가대표 불자선수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선수들과 함께 식사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심석희 선수에게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글=윤호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주요 불자선수들 佛心 레이스 일정

쇼트트랙	심석희	2월 13일	500m 결승, 17일 1500m 결승, 20일 3000m 계주 결승
	황대헌	2월 10일	1500m 결승, 17일 1000m 결승, 22일 500m 결승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2월 18일	500m 결승
	모태범	2월 19일	500m 결승
	노선영	2월 19일	준준결승, 21일 준결승 및 결승
스노우보드 평행대회전	이상호	2월 24일	결승
	최보군	2월 24일	결승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이광기	2월 14일	결승
바이애슬론	김용규	2월 11일	스프린트 결승, 12일 추적 결승, 15일 20km 결승
아이스하키	엄수연	2월 10일	스위스전, 12일 스웨덴전, 14일 일본전





동국대 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조계종 승려복지회, 의료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올해부터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동국대 산하병원 입원진료비가 종단차원서 전액 지원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정우, 조계종 총무부장)는 "승려복지 지원과정서 나타난 민원을 해소하고, 불교병원인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 분당 · 경주)의 스님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그동안 승려복지회는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에서 종단 협약병원(동국대 일산 · 분당병원, 보리수요양병원) 또는 교구본사 협약병원을 우선적으로 가거나 그 외 병원의 경우 종단 협약병원서 이관된 경우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에 대한 입원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승려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가톨릭서 신부와 수녀가 성모병원을 이용할 때, 원불교서 교무와 전무가 원광대병원을 이용할 때 혜택이 제공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선택진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려복지회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입원진료비는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 이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제외한 전액이다. 상급병실 이용료는 비용이 매우 높은데다 지원 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아울러 승려복지회는 4대 중증질환(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 틀니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분)도 지원한다.

승려복지회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 승려복지제도 완비는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제35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서 벗어나 수행과 포교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 신규 조직

총무원장 등 21인 내 위원 구성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신도시 거점사찰 조성 등 조계종의 종단불사를 담당할 별도 조직이 구성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2월 1일 '종단불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 · 공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종시 및 위례신도시 거점사찰 조성사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시설사업 △10.27법난 기념관 시설 건립사업 △기타 추진위원회가 결의한 종단시설 건립사업 △종단불사추진을 위한 예산수립 및 모연사업을 수행한다.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이 맡으며 위원으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총무원장이 추천한 교구본사주지 3인, 중앙종회 총무 · 재정 · 사회분과위원장, 총무부장, 불사총도감, 조계사 · 봉은사 관리인,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신도회장 등이 포함되며 총 21인 이하로 구성된다.

아울러 10인 이하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토목 · 건축 및 주변환경 조성, 시설계획, 건설사업자 선정, 설계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불사총도감이 맡는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 2018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

(呑虛講塾)

– 불교 한문 공부는 탄허강숙 –

탄허강숙은『新華嚴經合論』완역 등 佛典譯經에 헌신하셨던 탄허(呑虛, 1913~1983) 선사의 교육정신을 받들어 설립된 불교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탄허 선사는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훌륭한 인재 1명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 인재양성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야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1학기(3월 개강) 탄허강숙에서는『벽암록』(석지현),『주역』(성태용 교수),『장자』(이상현 교수),『금강경오가해』(이상하 교수)를 강의합니다. 원전강독 중심으로 내용은 물론, 시대적 배경, 한문의 구조와 용례, 훈고 등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哲人들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공자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습니다. 착해도 학문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고금(古今)의 지성(知性)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 2018년도 1학기 강의 일정 및 장소

- ●일시 2018년 3월 6일(월) ~ 6월 31일(목) 저녁 7시 ~ 9시
- ●방식 한문 원전 중심 강의 및 내용 해설 (초심자도 수강 가능)
- ●장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 2018년 1학기 개설 강좌

	월	화	수	목
강좌 및 원전명	벽암록(碧巖錄) 2017년에 이어 43칙부터 강의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주역(周易)	장자(莊子)
강 사	석지현 벽암록, 종용록, 선시감상사전 완역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상현 한국고전번역원 초빙교수

※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일~2018년 3월 3일
- 접수방법 :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로 접수 또는 전화접수도 가능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전과목 수강할 경우 55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개강일 배포
- 문 의 : 02-732-2403~4, H.P) 010-3731-1586/010-5226-2149

■ 강사 프로필

- 석지현(벽암록) : 동국대 졸업. 인도 유학. 선어록《벽암록》,《종용록》,《禪詩감상사전》,《우파니샤드》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이상하 교수(금강경오가해) : 고려대학교 박사. 현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십지경론》,《십송률》,《한암 · 탄허 선사 서간문》,《경허집》,《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성태용 교수(주역) : 서울대 철학과 졸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정년퇴임(2017년). 건국대 철학과 명예 교수. EBS에서 '주역과 21세기'라는 제목으로 48회 주역 강의하며 인문학 대중화에 공헌. 노자(도덕경)와 장자(莊子) 강의. 한국철학회 회장. 재가불교단체 '우리는 선우' 공동 대표 역임.
- 이상현 교수(장자)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현 한국고전번역원 초빙교수.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20년 동안 장자 강의.《대각국사문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어린이집 개원… 조계사, 새싹불자 터전으로

서울 조계사, 새해 맞아 어린이 · 청소년 포교불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가 자라나는 새싹 불자들을 위한 터전으로 변모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29일 관음전 접견실에서 2018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부주지 원명 스님, 선림원장 남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처음 취임하며 조계사를 편안한 집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어린이 · 장애인 · 노인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역대 주지스님들이 너무나 잘했고, 그 빈틈을 메우겠다고 다짐했다"며 "2018년을 한국불교 중흥 초석으로 다지는 해로 삼고 포교와 전법으로 신행 모범도량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크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 △대사회사업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 개최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위상 강화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다. 먼저 첫 사업은 어린이집 건립불사다. 조계사는 2016년 인근 을유문화사를 매입하고 현재 어린이집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가 위치한 종로에는 약 3만 명의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계사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조계사 어린이집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1,151㎡규모다. 1층에는 조리실과 영아반, 2층은 유아반, 3층은 교사실과 실내놀이터, 4층과 5층에는 미술과 음악, 영상 등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실, 6층은 옥상 놀이터로 구성된다. 올해 3월 리모델링 공사가 발주되며 4월 착공, 8월 준공된다.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점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는 점이다. 지현 스님은 "종일반이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 맞지 않아 여러 애로점이 있다는 판단에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올해 8월 준공되는 조계사 어린이집 조감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지상 6층에 10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 가능한 시설로, 새싹 불자 양성에 터전이 될 전망이다.

8월 준공, 지상 6층 규모로
직장인 위해 밤 10시 운영
'아이좋아, V캠페인' 도 전개
실천대상 등 활동가 지원도

이와 함께 어린이 · 청소년법회 활성화를 위한 '아이 좋아, V캠페인' 도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조계사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하반기 열리는 합동수계법회까지 2명의 친구들을 조계사 법회에 나오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2월 25일 오전 10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과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불자들이 함께 V를 그리며 캠페인의 문을 연다.

조계사는 향후 어린이 · 청소년이 주체가 된 포교단을 운영하며 어린이 · 청소년 밴드, 사물반, 오케스트라반 등 특성화 교육 동아리 활동도 전개한다. 또 스님과 지도교사가 어린이 · 청소년 상담과 관찰일지를 작성하며 매월 한차례씩 학부모와 아이들이 소통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칭찬합시다'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 보급하며, 조계사 청년회, 대학생들을 연계한 멘토링도 제공한다.

지현 스님은 "최근 발표된 종교인구 감소 문제는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어린이 포교 중심도량으로 위상을 확립해 한국불교의 미래불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큰 인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어린이 · 청소년에 이어 신도들 전반으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외계층 · 불교활동가 지원 확대

조계사는 종단 대표사찰의 위상에 맞게 대사회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조계사는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낙산어린이집, 창일어린이집을 수탁 ·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련과 탈북대학생 장학금 등 20여 단체에 연간 1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원심회 법회 및 일자리 나눔터, '일구데이' 채용박람회, 쪽방촌 봉사 등 다양한 대사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의 선택적 예방접종 비용지원과 실직자 치유상담 지원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법회를 정기적으로 연다. 3월 서울지역 장애인 연합법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장애인 법회를 진행하며, 청각장애인 신행단체인 조계사 원심회를 주축으로 장애인 신행교재도 연구 · 제작한다. 이에 앞서 대웅전 출입과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조계사 불교자비 실천대상을 신설해 교육과 포교, 사회, 문화,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조계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축제도 열린다.

지현 스님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많다. 이들을 격려하고, 또 외국인과 시민들이 조계사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불자와 시민이 소통하는 조계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 4월 공청회 예정

조계종 선출제도특위 '발전적 선출방법' 주제로

조계종 총무원장선출제도와 관련된 공의를 모을 공청회가 오는 4월 열릴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각종 선출제도 검토 후 4월경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특위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 논의의 건' 을 통해 타종단 및 타종교, 해외불교의 행정수반 선출방식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이 '율장을 참고로 한 소임자 선출방안' 을 정리했다.

덕문 스님은 "율장에 따르면 현전승가 구성원은 비구로서 문제가 없으면 초하비구도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법계를 근거로 일정 이상의 승랍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일은 율장정신과는 상반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조계종단을 하나의 현전승가로 보기에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서는 직선제와 간선제, 추대제 등 안을 도출한 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선거제 폐지와 관련해 특위가 맞춰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뜻을 모았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원장스님 의견에 따라가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 번 더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선거제뿐만 아니라 선출제도서 불거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예방책과 강력한 징계조항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위는 직 · 간선제와 추대제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뒤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 선출방법'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윤성식 고려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김봉석 변호사가 위촉됐다.

윤호섭 기자

불교지도자들 "인류평화 위한 서원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지도자 하례법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인사를 나누고,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2018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차석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부회장 홍파(관음종) · 편백운(태고종) · 만청 스님(대각종)과 인선 정사(총지종) 등 종단협 소속 대표자들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먼저 부처님전에 연등과 꽃 공양을 올린 뒤 진리의 가르침을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을 다짐하며 3배 했다.


종단협 신년하례에 참석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배례를 올리며 신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이후 서로 배례하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장 설정 스님은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을 강조한 뒤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다짐하더라도 한 번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 이웃부터 자비의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대해 나가자. 조화로운 새 세상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불교계 전통문화가 정부 · 지자체 정책에서 홀대 받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역사이자 민족 전통문화다. 전통문화를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는 잘못된 관행과 시각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자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석부회장 회정 정사와 부회장 홍파 스님 역시 본부사에 충실하면서 공의 세계 구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유기〉 속 주인공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 정토임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오정' 을, 계율을 못 지키고 살기에 '팔계' 를, 능력은 출중하지만 오만해 공한 것을 잊지 말라고 '오공' 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서 "결국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불교계가 이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과 문대림 청와대불자회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국태민안을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주길 요청했다.

이후 종단협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윤호섭 기자



혜선스님의 목단화

액운을 없애주고 재운을 부르는 길상화

혜선스님은 출가해서 법화경 사경을 수행하는 중 선몽에 선재동자가 나타나 전해주는 목단꽃을 받고 신비스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가피로 법화경을 후불로 모시고 목단꽃을 그리면서 법화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목단꽃을 받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스님께선 매일 축원을 드리면서 열심히 목단꽃을 신도들을 위해 그려주고 계십니다.

주문하신 불자님께 개인 축원을 드리고 맞춤 목단화를 그려 드립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불자님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사에 쓰여집니다.



■ 구입처 : 법화선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47-1, 3층)

010-8923-3385. 053)476-3385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3-000568-4 (예금주 : 법화선원)
http://blog.naver.com/beophwa3385


▲ 30호


▲ 20호


◀ 40호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을”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등 합동분향소 잇달아 방문

설정 스님, 재발방지 요청
유가족 위한 지원금도 전달
밀양사암聯, 49재 기도 입재
“슬픔 극복에 마음 모아달라”

윤호섭 · 하성미 · 박진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은 1월 29일 밀양 합동분양소를 찾아 조문하고 세종병원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29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방문,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설정 스님은 세종병원서 사고를 당한 故김삼석 할머니 빈소를 찾아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들과 아픔을 공유했다.

이어 스님은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유족과 밀양시민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모든 사람이 미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관음종 등 불교 각 종단도 대표들이 밀양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태고종은 1월 27일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50여 스님들이 밀양합동분향소를 찾아 위로와 함께 성금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종단 스님 50여 명도 1월 28일 밀양합동분향소를 찾았으며 관음종은 29일 총무원장 홍파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등 11명을 대표로 한 분향단을 꾸려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밀양불교계는 이번 참사 극복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연합회장 태우 스님과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 밀양 용궁사 정무 스님 및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임원진, 포교사단 등 100여 명으로 된 조문단이 27일 밀양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데 이어 각 사찰에서 화재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현수막을 걸고 추모기도를 입재했다.

참사 49일인 3월 15일까지 기도를 진행하며 49일째에는 밀양시민이 동참하는 합동위령재도 열 계획이다.

사암연합회장 태우 스님은 “밀양 화재 참사는 밀양시민을 넘어 온 국민의 슬픔이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은 왕생극락하셨을 것”이라며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은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유가족들의 아픔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피해 극복을 기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는 2월 1일 현재 사망 39명, 부상자 152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중 3명이 위독하며 9명이 중상인 상태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밀양시는 2월 3일 합동위령제를 열 계획으로 조문객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영상 강좌 안내서’ 조계종 교육원서 발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종단 스님들의 자율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을 위해 추천 동영상 강좌 안내서 ‘불교 속 불교, 불교 밖 불교’를 발간했다.

교육원의 안내서는 1부 ‘불교 속 불교’와 2부 ‘불교 밖 불교’로 구성됐다. ‘불교 속 불교’는 훌륭한 불교 강의라고 평판이 나있는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의 강의 콘텐츠로, 온라인으로 접속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모았다. ‘불교 밖 불교’는 인문 · 사회 · 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 모음이다.

소개되고 있는 강좌들은 유튜브(YouTube), 테드(TED), 교육방송(EBS), 불교TV(BTN), 불교방송(BBS) 및 종편 방송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들이다. 조금 더 관심을 있다면 오마이뉴스의 ‘오마이스쿨’이나 아트앤스터디의 특강, 국내 대학의 500개 이상의 강좌가 무료로 탑재돼 있는 ‘한국형 무크(K-MOOC)’의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원은 “종단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안내서를 증보 ·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IoT 기술 도입… 예방적 방재 나선다

문화재청, 신년 회견서 방재 5개년 계획 발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예방을 중심으로 한 방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1월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 방화 사건 1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 다양 ·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에는 △방재시설 확충 △전문인력 배치 △관계자 교육 · 훈련 △첨단시설 문화재 방재 도입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첨단 문화재 방재시스템 도입은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시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대책 수립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한다.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안전교육을 사찰과 고택 문화재 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재난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 · 비치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외 소화전과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소방 설비 보강, 화소수와 야간 식별능력을 높인 폐쇄회로 TV(CCTV) 등 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도 확대할 방침이다.

늘어나고 있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선적으로 경주 등 지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건축문화재 내진 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동산 문화재 전도 방지를 위한 면진대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과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국민에게도 문화재 방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마거사처럼 청와대 佛心 증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월 30일 청불회장 공식 취임


하승창 청불회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청와대불자회는 1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청와대불자회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 하승창 회장의 취임을 알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취임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설정 스님을 종단협 회장단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각계 신행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하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저는 이제 막 불도에 입문한 초심자다. 이런 제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자대비한 원력을 사바세계에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청불회장을 맡아 무겁고 진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청와대불자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공직자에게는 깊은 윤리관과 국가관, 애민정신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면서 낮은 곳에 계신 국민의 소리를 귀하게 듣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면서 불교계 현안이 불통으로 인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부대중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제천, 밀양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사로 나선 설정 스님은 “훌륭한 국민정신이 정립될 때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청와대불자회가 신심과 원력, 공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과 국가 발전,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불교는 정법이다. 바른 법이자 맑은 법이고, 밝은 법이다.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것이 불교인만큼 삼보의 의미를 잘 알아 바른 불자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청불회장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더불어 나누고 공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길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청와대불자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한편, 안으로는 불심을 돈독히 하고 밖으로는 불교를 외호하는 신행단체로 더욱 성장하길 기원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하 회장을 비롯한 불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종단협 회장단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하 회장에게 ‘송도(松道)’라는 호를 수여하며 “소나무는 고고함과 희망을 의미한다.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회장은 “잘 새겨서 호를 쓰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종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확대하면서 대사회적 활동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1월 29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19일까지.

사회노동위 종령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출 · 재가자 30인 내외로 구성 △부위원장 수 증원 △자문위원회 삭제 △조 제목 수정 및 조직 정비에 따른 내용 수정 △실천위원 삭제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령 개정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스님들의 실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늘려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부는 또 “스님들의 사회노동위원회 겸직 해소로 단일조직화가 가능해져 사회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불교의 사회적, 종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연등회 앞서 버스정류소 이동행사 열린다

서울시, 오는 3월까지 보행전용 거리행사 마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6년 진행된 연등회 제등행렬 당시 모습. 현재 중앙차선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선 상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말 개통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불교계 전통문화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앞서 버스정류소를 분리 · 이동하는 연등회 사전점검 성격의 축제를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새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2.8㎞) 일부구간 내에서 보행전용 거리행사를 열고, 버스정류소 이동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축제인 연등회에 앞서 버스정류소 이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설치된 정류소는 모듈형태로 설계돼 분리와 조립, 이동이 가능해 행사시 지게차로 정류소를 도로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마련하는 거리행사의 피드백이 오는 5월 열리는 연등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게차로 정류소 이동
연등회 사전정보 기대
소요예산 · 도로통제 등
연등회 협의는 진행 중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연등행렬에 차질이 없도록 정류소를 옮겨 그 위에 관객석을 설치하거나 전광판을 활용한 행사정보 안내 등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소 이동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계획한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연등회는 8차로 중 6차로를 연등행렬로 이용하고, 바깥 차선을 관객석으로 배정했다"면서 "올해부터는 관객석 사이에 정류소가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의자를 놓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연등회 백미인 연등행렬 구간서 10여개의 정류소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등회서 정류소를 분리 · 이동하고 재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중앙차선분리대 등 관련시설 철거와 재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연등회 보존위원회 확인결과 서울시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외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어서 소요예산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도로통제 역시 서울시와 연등회 보존위, 정류소 설계업체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보존위와 설계업체는 안전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도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편의시설 유지를 위해 긴 시간 도로통제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소 이동으로 인해 도로통제 시간이 2~3시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이후는 늦은 밤이어서 부담이 없지만 통제 시작 시간은 협의가 필요하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연등회 보존위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3자 협의를 거쳐 연등회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존위 측은 "공사가 전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보다는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안전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유관단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화선' 도 불교대학서 배워요"

공생선원 간화선 불교대학 개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생선원(선원장 무각)은 간화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2년 과정의 선(禪)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일반 사찰의 불교대학이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선불교대학'은 간화선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입문과정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남양주 성관사 성진 스님, 불광사 선감 석두 스님, 불교인재원 이사 박희승 교수가 강의한다. 심화과정은 선어록을 중심으로 실참 참구하는 과정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 스님의 안목을 나의 안목으로 체험하고,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를 증명법사로부터 직접 결택하고 자신의 수행 기틀을 세우는 과정이다. 〈보조수심결〉 〈보조신심직설〉 〈달마혈맥론〉 〈한암일발록〉 등 조사어록을 교과목으로 진행한다.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은 "현대인들이 본래 참 모습을 찾아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02)900-2448

노덕현 기자

"지역주민 누구나에 열린 힐링공간 되길"

설정 스님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격려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격려 방문했다. 사진제공=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국내 최대의 복지관 운영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짧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위안 받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 써 주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월 27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을 격려 방문했다.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규모 복지관이다. 이번 방문에는 설정 스님뿐만 아니라, 최성 고양시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동행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고양시 지역의 취약계층, 장애인 등 관련 다양한 복지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으며, 복지 증진을 위한 불교계와 지자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20주년 인드라망, 세상과 연결한다

1월 27일 정기총회서 새 20년 여는 방향성 밝혀

인드라망 20년 백서 발간
11월 10~11일 20년 한마당
회원 배가운동도 적극 전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드라망생명공동체.

귀농운동을 중심으로 농도교류, 마을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는 1월 27일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인드라망 회원들과 함께 창립 20주년이 되는 인드라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과 전망을 모색하는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난 20년간 귀농운동을 중심에 뒀던 인드라망의 올해 방향성은 '세상과 연결하기'이다. 사회적,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생명이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다.

인드라망 총회는 전부 대화마당으로 진행됐다. 구성원 모두가 대화하고 어울리는 대동한마당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겠다는 의도였다. 인드라망이 20주년을 맞기까지 잘한 활동으로는 '마을공동체 운동'과 '실상사작은학교'가 선정됐다. 지난 20년을 깊이 있게 평가해 유명유실한 일과 활동을 만들어 나가자는 기대도 있었다. 또한 인드라망 대중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2018년을 제1 실현지 '실상사 방문의 해'로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드라망은 〈인드라망 20년 백서〉를 출간하고 11월 10~11일 근본도량 실상사에서 '20주년 한마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 배가 운동 '만 개의 구슬 연결하기' 작업도 단계적으로 펼쳐나간다.

인드라망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집중화, 거대화의 흐름을 막는 방안임을 다시 인식한다.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 사업과 '천 개의 마을 잇기' 원탁회의의 연대체로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참사람의 숲을 이룰 때까지 생명평화와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활동을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형 기자

65세부터 새 소득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노인활동지원사업 모집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수영장 안전지킴이 40명, 복지관 안전지킴이 20명, 교통 안전지킴이 30명, 지하철 안내도우미 30명, 지역아동 서포터즈 30명으로 총 150명이다.

참가자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내 · 외부 및 주변, 분당구 내 지하철 역사, 성남시 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게 된다. 사업은 3월 2일에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근무시간은 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시 2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정부 및 기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는 신청제외 대상이다. (031)620-2865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첫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불교문화유산 탐방 · 올림픽 관람 '동시에'

평창올림픽 '강원 문화재 지도' 살펴보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역사문화탐방 지도가 제작 · 배포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람객들을 위해 강원 지역 문화유산 홍보리플렛 '강원도 문화재 지도(한글판 · 영문판)'을 배포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강원도 문화재 지도'에는 주제별 문화유산 방문 답사코스 16선이 선별돼 있으며, 코스별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와 관련 사진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일반 관광지도와 차별화된 '이야기 있는 구성'이 눈길을 끈다.

불교 관련 코스는 6번째 코스 '옛 절터를 찾아서'와 특별코스로 편성된 '깨달음과 치유의 천년 옛길- 오대산 월정사 힐링로드'다.

월정사 중심 둔 깨달음 옛 길

특히 올림픽 개최 지역인 평창에 가장 근접한 '오대산 월정사 힐링로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대산은 산 전체가 불교의 성지가 된 남한 유일의 산이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자장율사와 속세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가고자 했던 신라 두 왕자의 불심으로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는 문수보살의 성지가 됐다.

문화재청이 추천하는 코스는 오대산에서 소금강, 월정사, 선재길, 오대산 사고, 상원사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깨달음과 치유, 그리고 역사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문화재들이 '월정사 힐링로드'에 담겨 있다.

월정사에서는 적멸보궁 앞 팔각9층석탑(국보 제48-1호)과 이를 공양하고 있는 석조보살좌상(국보 제48-2호)을 꼭 친견해야 한다. 부처님 사리신앙이 담긴 석탑을 향해 공양하고 있는 보살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불교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보이다.

또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9km의 '선재길'은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어볼 만하다. 이 길은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이후 불자들에겐 깨달음의 길이었고, 화전민들에게는 삶의 애환이 담긴 길이었다. 또한 선조는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오르내리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족보인 〈선원보락〉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평창 오대산사고(사적 제37호)를 탐방했다면, 월정사 일주문 앞에 있는 오대산사고 전시관도 둘러보길 바란다. 전시관에서는 평창올림픽을 맞아 오는 3월 20일까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 복제본' 전시가 진행된다.

옛 절터로 떠나는 시간탐험

답사 코스 6번째인 '옛 절터를 찾아서'는 강원도 유명 사지(寺址)들을 만날 수 있다. 기실 옛 절터 여행은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공허함을 만나러가는 여정이다. 문화재청은 원주 거돈사지를 시작해 원주 법천사지, 원주 흥법사지, 홍천 물걸리사지, 양양 선림원지, 고성 건봉사로 이어지는 답사코스를 제안한다.

답사 시작점인 원주 거돈사지(사적 제168호)는 9세기경에 지어져 조선 전기까지 유지된 절터다.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는 고려시대 법상종 사찰로 크게 번성했으나 임진왜란 당시 전소됐다.

원주 흥법사지(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는 일제에 의해 수난을 겪었던 곳이다.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과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이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옮겨져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돼 있다. 현재 사지에는 흥법사지삼층석탑(보물 제464호),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만이 남아 있다.

통일신라시대 홍양사가 있던 곳인 홍천 물걸리사지(강원도 기념물 제47호)에는 다양한 보물급 불교 성보가 남아 있다. 이곳에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을 비롯해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 삼층석탑(보물 제545호)이 보존돼 있다.

길따라 가면 이르는 古刹들

16개의 답사코스를 따라가면 곳곳에서 사찰들을 만날 수 있다. 1번째 코스인 '관동팔경'에서는 관음신앙의 성지 낙산사(사적 제495호)가 있다. 2005년 화마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성원으로 지금은 완전히 복원됐다.

문화유산 답사코스 16選 공개
옛 절터 · 월정사 힐링로드 포함
낙산사 등 코스마다 사찰 있어
강원도 명승 연계해 탐방 '강추'

한국 전통 조경을 만날 수 있는 답사인 '한국 전통 조경의 미학'에서는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명승 제70호)과 홍천 수타사가 있다. 973년에 지어진 청평사는 계곡 사이 분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영지 · 폭포 · 너럭바위 등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공작산이 감싸고 있는 수타사는 봄철쭉과 가을 단풍이 절창이다.

12번째 코스인 '설악산의 전설과 설화'에서는 신흥사와 백담사를 만난다. 설악산의 비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흥사와 백담사에서는 설악에 굽이굽이 서려있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일 수 있다.

신과 함께하는 길인 동해안 별신굿을 되새기는 15번째 코스의 시작은 대관령 성황사(강원도 기념물 제54호)와 산신각이다. 성황사는 통일신라시대 승려로 강릉을 보호하던 신으로 추앙받던 범일 국사를 모신 곳이며, 산신각에는 이곳에서 검술을 배운 김유신 장군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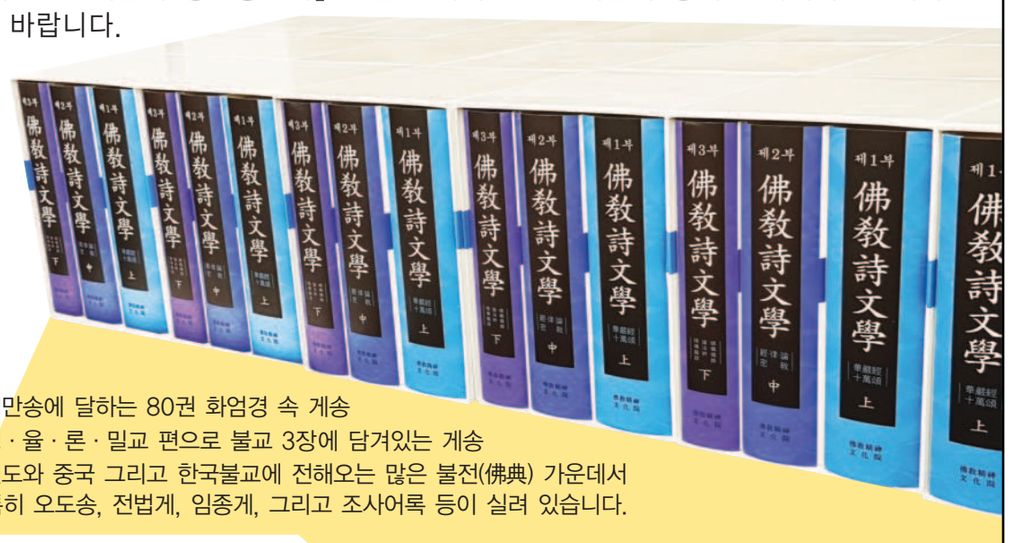
한편, 문화재청의 '강원도 문화재 지도'는 평창올림픽 홍보관, 서울시 · 공항 · 강원도 내 관광안내소, 강원도청,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관광객이 밀집하는 곳에서 배포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발맞춰 개최지인 평창, 정선, 강릉 지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시문학(佛敎詩文學) 上 中 下 강의

활안스님의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을 계기로 불교시문학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상권 : 십만송에 달하는 80권 화엄경 속 게송
■ 중권 : 경 · 율 · 론 · 밀교 편으로 불교 3장에 담겨있는 게송
■ 하권 :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불교에 전해오는 많은 불전(佛典) 가운데서 특히 오도송, 전법게, 임종게, 그리고 조사어록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강의내용 및 시간

■ 상권 (월 1회) :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24일 개강) / 화엄경 게송 강의
■ 중권 (주 1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3월 5일 개강) / 아함경 ~
– 강사 : 활안 한정섭 스님
※ 불교시문학은 (사)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각권 정가 5만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 문의 02)969-2410. 969-498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신중작법,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통도사 불교대학 특강

“지혜의 빗자루 만들어 무명번뇌 쓸어내자”

주제 :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

현진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진 스님은… 1973년 통도사 바로암에서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무비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보성 스님에게 전계를 받았다. 조계종 승가대학원을 1기로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중강, 직지사 승가대학 강사,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통도사 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 제대로 정진하고 있을까? 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진 스님은 1월 27일 통도사 불교대학 특강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주제로 강의했다. 현진 스님은 “부처님의 성도재일처럼 우리도 자신의 납월 8일을 찾아서 깨달아야 한다”며 “번뇌가 늘러 붙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서 번뇌를 지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설법전을 다른 말로 하면 개대환희전이라 합니다. 개대환희(皆大歡喜),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우리가 경을 읽는 이유, 수행을 하는 이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물으면 ‘모든 사람을 다 환희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환희로울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모두를 환희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서 6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수행을 한 석가모니를 통해 깨친 것으로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개대환희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 집은 개대환희전이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성내는 사람이 그 안에 살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로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학자에 불과합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어가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종교의 교(敎)가 아니고 부처가 되어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도리,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불교의 입문반, 경전반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무엇을 배우는지 알지 못하면 입문반이든 경전반이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대환희로 나의 한 가지 행위가 어떠할지 일깨워가는 겁니다.

나의 납월 8일은 언제인가

부처님의 납월 8일은 성도재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납월 8일은 전부 다 다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십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납월 8일은 내가 깨닫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나의 납월 8일은 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납월 8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초파일도 신중기도도 아니고 납월 8일입니다. 이 날을 향해 걸어가는데 있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 육바라밀을 배워야합니다.

나만의 납월 8일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내 행위가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걸음이 되기 위해 육바라밀을 배워야합니다. 부처님은 새벽에 이르러서 납월 8일 새벽에 ‘계명성이 동쪽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고 내 그렇게 들었노라’고 하십니다. 달 주변의 샛별은 3천년 전에도 동쪽에서 빛나고 있었고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샛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어째서 누구는 저 별을 보고도 3천년 전 석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깨치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모두를 환희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마지막 정진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쳤습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에 눈을 떠 동쪽 하늘을 본다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샛별을 보고 깨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제 찻상에는 찻잔이 몇 개나 되고 책장에는 책이 수십 권이 되고 양말도 속옷이며 겉옷이며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왕자가 누렸던 그 호사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왕자가 어느 날 거지의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6년동안 모두를 환희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공부 할수록 빗자루 섬세해져
마음 다해 조심히 다뤄야한다
휴식 없이 수시로 정진해야…

저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꾸 뭔가가 늘어납니다. 저도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히 비워라, 내려 놓아라 하는데 이상하게 제 방에는 자꾸 늡니다. 그래서 ‘올해 납월 8일에 나는 무엇을 내려 놓았는가’ 해보면 오히려 들어앉는 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성제를 잘 안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려 놓았는지를 돌아보고 일깨우지 못한다면 불교대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가는 큰 학문, 불교대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가는 장소에 와서 내 걸음걸이를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많이 잘못되었겠지요.

부처님은 6년 동안 품었던 의심덩어리가 샛별을 바라보는 동안 해소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곁에 다가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작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깨우쳐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때에 가면 무슨 가르침이 들어가겠습니까? 눈을 맞춘다는 것이 적절한 때를 아는 겁니다. 때에 맞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앞에 다가온 인연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자기 자신의 한 가지의 깨우침을 깨치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미움은 내가 만드는 것

이 속에서 모인 분들은 전부 인연으로 만난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그냥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항상 내 앞에 앉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눈앞에 드러나야 꼴 보기 싫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미운게 아니라 내가 꼴보기 싫은 것을 내 앞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이곳에 온 이유를 자기자신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납월 8일을 향해 가는 사람이 왜 그런 눈을 갖습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를 갖다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눈엣가시같이 그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이 맨날 먹는 밥에다 흙을 퍼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밉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빈약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꼴 보기 싫은 것을 찾으려니까 얼굴도 예쁘고, 일을 해도 자기보다 잘하고, 발 뒷꿈치가 동그란 것이 보기 싫답니다. 발 뒷꿈치가 안 동그란 사람이 어딨습니까. 참 이유라 할 것도 아니지요.

결국 우리자신이 다른 사람을 거슬리게 봐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모자라거나 하찮은 존재는 없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못났습니까?

수시로 번뇌를 쓸어라

나라는 것은 쓰다가 버릴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쓸어야합니다. 한 번 쓸어서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진득하게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번뇌라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눌러 붙어있습니다. 수시로 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도 만들고 지혜라는 빗자루도 만드는 겁니다. 거친 것을 쓸기 위한 대빗자루도 만들고, 수숫대로 만들어 쓰는 빗자루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배우면서 점점 더 섬세하게 쓸 수 있는 빗자루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빗자루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소지소지 소심지’라고 연세 드신 분은 청소하는 것을 소지한다고 합니다. ‘소지하세 소지하세 쓸어라 쓸어라. 소지소지 소심지.’ 처음에는 큰 빗자루로 쓸었다가 점점 공부가 섬세해져서 이제 지혜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쓸어라 쓸어라 내 마음을 쓸어라. 소지소지 소심지.’ 내 마음을 쓸지 못한다면 그저 이 세상에 먼지만 뽀얗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빗자루질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 마음의 빗자루는 마음을 다해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쓸어야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입에는 개, 돼지, 지렁이가 튀어나옵니다. ‘쓸어라 쓸어라 마음 땅을 쓸어라.’ 마음을 쓸지 못하면 번뇌만 일으킬 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서 알려주다보니 잔머리만 늘고 마음이 착 가라앉지 않습니다. 뭔가 배워서 불교대학 안 온 분에게 가르쳐주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러 불교대학에 왔는지 잊어버리고 말을 엮는 기술만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른 다시 쓸어야지요.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지혜의 빗자루로 쓸어야합니다. 이 빗자루는 모든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들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명이라는 것을 쓸어내서 다시는 내 집 문 앞에, 마음 집 문 앞에 티끌도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빗자루로 쓸기만 하면 그것은 무명이 아니라 지혜로 바뀝니다.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지혜로 바뀌기도, 욕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손에 빗자루를 어떻게 할지가 달려있습니다. 무명번뇌를 다 쓸어서 지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육임 ‘효사비결’ CD프로그램을 담아드립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난(전화) 시간에 자동화 된 시스템으로 휴대폰에 손쉽게 담긴 육임 ‘효사비결’이 즉시 판단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일러주게끔 적시 되어 있습니다 –

1.전국67개지역설정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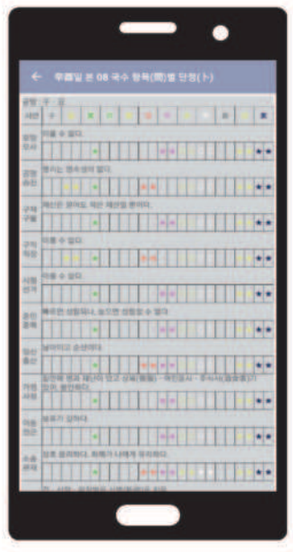
2.육임 당면사 26개항 첫 화면



3.육임 일생사 19개항 첫 화면



4.육임 성부판단 24개항 화면



■ 위 1. 지역설정 = 전국 각 지역 시간차에 따른 판단 오류 방지를 위한 이동거소지 설정
■ 위 2. 당면사 미리 아는 先目 8개 판단항목 = *방문(전화)자의 신뢰도 명시함 *방문(전화)자 말의 진위도 명시함 *방문(전화)자 상담사의 신, 구사 명시함 *방문(전화)자의 선천적 선악인 명시함 *방문자(전화)와의 이익, 손해, 피해, 무력인 등 이해관계 명시함 *병 치료, 불치, 長病 등 명시함 *병 에 침범한 鬼,不貞 및 명칭 명시함 *遷度 救病施食 祈禱 효과 유무 및 효과일 명시함 *이사 길방 길일 명시함
■ 위 2. 당면사 미리 아는 先目 21개 판단항목 = *초사(初辭) *시보(時報) *내정(來情) *전체적 사정 *특 별한 사정 *배경사항 *숙명재해 *대적처신방침 *내외변화수 *월별신수 *소육임 *승패이해관계 *양,음택 길흉예지 및 길흉 좌향 *숫자법 *비방법 *성패應期 *男性力 *女性力 *묻는 사안 24개 항목 성부단정 (매매, 승진, 선거, 시험, 가출, 질병, 소송, 투자, 취직, 이혼할 남녀 간 이해득실 예지 등) 명시함
■ 위 3. 일생사 19개항목 *남자성품 *여자성품 *평생정체성 *일생특징 *일생숙명 *선천복분 *후천12복분 *현재신상 *평생운세 *나이별 운세 *일생변수 *女命大系 *신분직업 *壽病 등 *남자배우자 성격용모 *여자배우자 성격용모 *형이상법 (일생침범 鬼 不貞 山所탈 *비방법 *親仇자녀 *남 성력 *여성력 명시함
■ 위 4. 성부 진퇴 호악 여부 24개 항목판단 = 가. 육임사과삼전에 의한 판단 나. 12띠별로 변화하는 최종 굳히기 표시함

■ 기타 기능 = 가. ‘다음사람’(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전화)이 왔을 때 순서대로 굵은 화살표를 클릭하기만 하면 모두 정확함) | 나. ‘숫자법’(시간도 놓치고 ‘다음사람’도 혼란스러울 때 숫자를 고르게 해 해당숫자를 클릭하면 모두 정확함)
다. ‘자세보기’(각 판단항목 마다 붙여진 ‘자세보기’를 클릭하면 그 판단법칙근거가 체출 되어있어 학습하게 됨) | 라. ‘사과삼전’ 및 ‘천지반표’ 및 ‘판단보기’(각 부위개소별 상의를 표시하고 초기 중간 결과의 호악을 표시해 진퇴판단이 용이함)
마. ‘국수해설’(당면사와 일생사마다 각 해설을 자세히 붙여 초보자도 이 해설을 보면 전체 성부 맥락을 판단할 수 있음) | 바. ‘보기요령’(필독과 숙지로 육임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요령과 방법을 부기함)

■ 정 가 : 30만원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대한불교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야 010-8654-3321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초의와 兄 그리는 애절함을 담아내다

〈추사 김정희〉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③ 기산 김상희가 보낸 편지

기산(起山)은 김상희(起山 金相喜, 1794~1861)의 자(字)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아우로, 기산(起山)이외에 기재(起哉)라는 자를 썼으며 호는 금미(琴)이다. 영유 현령을 거쳐 호조 별장을 역임했다.

그와 초의는 평생 교유했는데 이들이 처음 만난 시기는 대략 1815년경이라 여겨진다. 당시 초의의 상경 연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학림암에서 추사를 만난 계기는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이는 초의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인연을 만난 셈이었다. 특히 초의의 학문적인 지향이나 수행, 그리고 새로운 시대 조류를 체험할 수 있었던 창구는 바로 추사였던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초의는 추사를 통해 그의 형제들뿐 아니라 경향에 역량 있는 사족들과의 폭 넓은 교유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김상희는 추사의 둘째 아우이다. 그가 언제부터 차를 애호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차를 애호했던 인물임이 분명하다.

초의가 쓴 '기산이 차를 보내 준 것에 감사하며 장구의 시를 보냈기에 그 운에 따라 화답하고 아울러 쌍수도인(김정희)에게도 올린다(起山以謝茶長句見贈次韻奉和兼贈雙修道人)' 는 그의 차에 대한 애호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이다. 물론 이 시에는 차로 맺어진 이들의 우정을 "한 번 얼굴을 돌려보고 하나 같이 기뻐하니/ 무슨 정이 더 간절할 수 있는가(一廻見面一廻歡 有甚情懷可更切)" 라 하였으며 그에게 보낸 초의차는 "내 그대에게 한마디를 청하노니(我從長者請下一轉語) 법희의 공양, 선열의 음식을 탐욕스런 사람과도 나누리(法喜供禪悅食還將容)"라는 것이다. 법희와 선열은 〈동다송〉에도 언급한 초의의 다도 세계이다. 따라서 이들은 오묘한 차의 경계는 공유했던 벗이며 차의 진면목을 담론했던 지기인 셈이다.

이처럼 초의차의 세계를 함께 즐겼던 김상희는 1844년 11월 11일,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무렵 추사는 제주도로 유배된 지도 4년이 지났으며 김상희의 나이도 지천명(知天命, 천명을 아는 시기)이 되었다. 그런대 그의 편지에는 형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도 수 십일이 지체되기 일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그였기에 초의를 통해 형님의 소식을 빨리 전해 듣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편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크기는 대략 40.5×29.3cm이다. 한지에 단정한 행서체로 썼다는 점에서 초의에게 대한 그의 정중함이 행간에 묻어난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초의선탑 회전(草衣禪榻 回展)' 이라 쓴 묵서로 보아 이 편지는 초의에게 보낸 답장편지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추사 김정희의 동생 기산 김상희가 1844년 11월 초의 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 초의와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겼다.

스님과 떨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막힌 것을 형기(形器)로서 말한다면 오직 일단의 신령한 흉금이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북쪽 땅은 깊은 겨울이라 빙설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때에 스님의 경지는 진열(眞悅)하시며 또 어떠신지요. 궁금함이 바다 물처럼 흐릅니다. 저는 치발(齒髮)이 모두 위태로워 옛날의 내가 아니며, 근심으로 부글부글 타듯이 마음이 졸아들어 설령 억지로 웃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상(海上, 제주도)의 소식은 수개월 동안 막혀 설령 한 통의 편지를 얻어 이미 (답신을)보냈는데도 수십 일이 지체됩니다. 스님이 계신 남쪽 하늘을 목을 빼고 바라보며 허둥지둥 책이나 시에 마음을 졸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이미 울타리 가에 버려진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지만 지난번 금강(琴江) 정자에서 스님들과 불법을 담론하던 일을 회상하니 이 무슨 환희천(歡喜天)입니까. 새 달력을 펼치니 더욱 흐르는 세월을 머물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 그리움으로 더욱 자신을 지탱할 수 없지만 두 가지만을 전달하니 어느 때 스님의 자리에 도착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를 대하니 캄캄합니다. 스님께서 마땅히 깨달으시길.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틈에 한번 한양(洌上)에 오시려는지요.

1844년 눈 내리는 섣달 11일 기산 김상희

(與師阻 今幾日月矣 其阻也 以形器言 唯一段靈襟 何能障 也 北陸冬深 氷雪塞地 此際禪居眞悅復何如 溯注如海 俗人 齒髮俱危 非舊我 而憂思煎 m雖强言笑中 未必然 海上信息 動阻數箇月 縱一得書 發已積屢旬 引領南天 只欲狂煎書卷詩筒 久已在 v籬外 回思 s時琴江亭子 與師輩 拂談乘是何等歡喜天也 新奠已開 益覺流光難住 遠懷尤不自持 第以二件轉付 未知何時到得蓮座耳 臨紙 w 師當領之 姑不 u何間欲一卓錫於洌上否 甲辰 雪臘 十一日 起山)

이들이 서로 소식이 두절된 지도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 편지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런 일시적인 단절을 마음에서 보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것인가 보다. 그의 나이 이미 50세가 지났기에 "치발(齒髮)이 모두 위태로워 옛날의 내가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이야 오십의 나이는 청춘이라고 하지만, 조선 후기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지금과 비견될 수는 없었을 터이다. 그러기에 나이 오십인데도 이빨이나 머리털이 성글어졌다고 하는 것이리라. 어디 나이만 탓할 수 있으랴. 그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유배된 추사의 병고가 깊어 갔고 그 또한 "근심으로 부글부글 타듯이 마음이 졸아들어 설령 억지로 웃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 처지였다.

추사의 동생인 기산 김상희가
1844년 11월 초의에 보낸 편지
"금강 담론 회상해보니 환희천"
지난날 佛法 논하던 그리움부터
유배 중인 형에 대한 걱정 담겨

김상희가 우려한 추사의 병에 관련된 정보는 1844년경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엔 병고가 깊어져 괴롭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해 봄,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치 허련(小癡許鍊)편에 보낸 편지에도 그의 어려운 상황이 잘 노정되어 있다.

한편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와서 둘째와 막내의 안부 편지와 스님의 편지를 받고 위안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보인다. 따라서 추사는 하인 편에 김명희, 상희, 초의의 안부 편지를 받고 크게 위안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추사가 "나는 괴로운 상황이 전과 같다"라고 한 내용도 보임에 따라 입과 콧병을 앓고 있던 그의 정황은 호전의 기미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김상희의 근심과 형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 속내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조금 더 추사의 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사는 입과 코의 풍기와 화기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초의에게 자주 '신이화(辛夷花)를 올여름에 많이 거두어 말렸다가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추사가 신이화를 보내달라는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신이화는 백목련 꽃 봉우리를 말하는데 콧병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특히 축농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가 코와 입병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편지는 대략 1842년~1944년 경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1844년 소치에게 보낸 편지뿐 아니라 다른 인편을 통해 보낸 편지에도 "저는 입과 코가 풍증과 화기로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그냥 둘 뿐입니다. 허군이 가지고 간 향실(일로향실)편액은 바로 받아 거셨는지요"라고 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추사는 아픈 와중에도 초의에게 성의를 다한 선물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소치 편에 보낸 '일로향실(一爐香室)' 이란 편액 글씨는 1844년경 제주 유배지에서 쓴 것이며 이는 초의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편지가 역사 연구, 특히 미세사(微細史)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앞에 언급한 김상희의 편지로 돌아가 보자. 그가 이 편지에서 "스님이 계신 남쪽 하늘을 목을 빼고 바라보며 허둥지둥 책이나 시에 마음을 졸일 뿐입니다"라고 했던 것일까. 이는 형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소식을 전해 듣고 싶다는 그의 마음을 드러낸 말이라 여겨진다. 더구나 이 무렵 그의 상황은 "오랫동안 이미 울타리 가에 버려진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 집안 형편이 침체된 정황을 이리 표현한 것이리라. 이런 와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위안을 준 것은 "지난 번 금강(琴江) 정자에서 스님들과 불법을 담론하던 일을 회상하니 이 무슨 환희천(歡喜天)입니까"라고 한 점이다. 환희천(歡喜天)은 대성환희자재천(大聖歡喜自在天)의 약어이다. 얼마나 기쁘고 자재한 세계라는 말인가. 답답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터 준 것이 바로 초의와 나눈 출세간의 담론이었다는 점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아무튼 그가 처한 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재파리외(在 v籬外)"는 울타리에 버려진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이다. 원래 '파리변(v籬邊)' 이란 말과 같은 뜻을 지녔다. 얼마나 가치 없는 물건이면 울타리 가에 버린 물건이랴. 그 자신의 처한 현실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 편지의 말미에는 세월의 무상함을 깨달게 하는 책력, 즉 새 달력을 펼쳐 보면서 "더욱 흐르는 세월을 머물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해가 바뀌고 새해가 오면 친한 이에게 달력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물론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예나 지금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소회일 것이다.

초의와의 해후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담아낸 언구로 "어느 틈에 한 번 한양(洌上)에 오시려는지요"라고 한 부분이다. 이 대목을 읽은 초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참으로 이들이 나눈 푸근한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긴 여운을 남기는 말은 진심이 아니면 그 따뜻한 정감도 전해지지 않는 법이다.

아무튼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이치이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입처(立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사단법인 등기번호 191321-0001925

(사) 범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회의장 성보
총무원장 대명
교육원장 묘광
규정원장 보광
호법원장 태산
포교원장 도원
마산종무원장 법산



(사)범불교조계종과 불법홍포의
큰 뜻에 함께 동참하실
대덕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1통
● 반 명 함 판 사진 ·····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수여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
해인사 055)351-3689 / 총무원장 010-3193-3689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1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 ·····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성스러움 구현한 '合一'의 금자탑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③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 전경. 팔상전과 미륵대불


팔상전 2층 추녀를 떠받치고 있는 각신

화엄 교의와 미륵정토사상 공존
동양 삼국 통층식 구조 유일 목탑
추녀 인물상 하늘 떠받치는 역사


법주사 팔상전 내부의 사천주와 팔상도. 내부가 통으로 뚫린 통층식 구조로 성스러움을 표현했다.

법주사 두 축선과 세 상징적 성소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성(聖)과 속(俗)의 상반성의 합일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저명하다.

엘리아데의 표현에 의하면 성스러운 종교적 공간은 '성스러움의 드러남', 곧 '히에로파니(hierophany)'를 갖춤으로써 세속과 차별되는 신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성스러운 공간 역시 세속의 지상에 구현한 것이다. 세속적이면서 성스러운 모순된 상반성의 합일로 나타난다. 성과 속의 변증법적 관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종교건축은 어떤 방법과 형식을 통해 히에로파니의 표상을 갖출 수 있는가? 엘리아데는 종교건축이 히에로파니를 추구하는 방법론으로써 거리, 높이, 중심, 정형의 특성 등을 구사한다고 보았다.

한국산사의 진입동선과 가람배치, 법당건축의 장엄세계를 살펴보면 엘리아데의 통찰을 수긍하게 된다. 산사의 청정한 숲길과 계곡의 물길은 영혼의 씻김과 함께 세속의 경계를 넘는 속리의 정화장치다.

일주문→ 금강문→ 해탈문을 거치는 과정, 곧 물리적 거리와 깊이가 심화될수록 중심성에 근접한다. 중심에선 특별한 형태의 높고도 웅장한 건축을 만난다. 종교적 태도에서, 혹은 심리적으로 성스러움의 의식이 최고조로 고양되어 법당건축은 히에로파니로 다가온다. 한국산사의 가람배치는 그 히에로파니를 중심으로 목적의식적인 유기체로 경영한 불보살세계의 만다라다.

법주사 가람은 두 개의 중심축선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히에로파니의 성소를 갖는다는 의미다. 남북방향의 수직 중심축선과 그에 직교하는 수평 동서방향의 축선이 그것이다. 수직축선은 관음봉을 주산으로 한 화엄종의 교의체계를 수용하고, 수평축선은 수정봉을 주산으로 한 법상종의 미륵정토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남북방향의 정점엔 대웅보전(실제로는 김제 금산사처럼 대적광전이다)이 있고, 동서방향의 정점엔 미륵대불과 용화보전이 있다. 용화보전은 현재 미륵대불 지하에 모셔 두었다.

수평과 수직 축선이 교차하는 가람의 중심에는 국내 유일의 목탑인 팔상전을 경영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계획적인 축선은 흐트러져 대웅보전으로 향하는 수직축선만 뚜렷하다. 근대에 들어 미륵대불을 조성하면서 시선과 부지확보를 위해 축선 아래에 터를 잡고, 석등, 석연지, 희견보살상 등을 이 곳 저 곳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람경영의 위계에 있어 세 히에로파니는 뚜렷하다. 대웅보전과 미륵대불, 팔상전은 변함없이 법주사의 상징적 성소로 현현하고 있다.

8봉, 8대, 8석문, 팔상전

법주사의 장엄세계는 팔상전(捌相殿)에 집중적으로 현존한다. 팔상전은 법당이면서 국내 유일의 5층 목탑이다. 화순 쌍봉사에 3층 목탑이 있었지만 1984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오직 한 기만 남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개의 장면으로 나눠 그린 불화를 팔상도(八相圖)라 부른다. 팔상도를 봉안한 건물이 영산전, 혹은 팔상전이다. 법주사의 팔상전은 여덟 '八'이 아니라 나눌 '捌'을 사용해서 특별하다. 물론 여덟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범어사 팔상전에서도 그 같은 편액을 만날 수 있다. 목탑 내부 사천주(四天柱) 사방 벽면에 각 면마다 2폭씩 부처님 일대기를 담은 탱화를 모셨다. 팔상도를 일렬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목탑의 건축특성을 적절히 활용했다. 사천주 사방벽면 따라 동→남→서→북 순서의 시계방향으로 빙 둘러 모신 희귀한 사례를 연출한 것이다. 북쪽 벽면에는 쌍림열반상을 상징하는 와불을 봉안하고 있다. 팔상도의 배치 순서는 곧장 예배 동선이 된다. 부처님 계신 방향에 오른편 어깨를 두고 세 바퀴 도는 우요삼잡이 탑 내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다. 그런데 법주사는 숫자 8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속리산은 8봉(峰), 8대(臺), 8석문(石門)으로 표현되는 산이다. 그 산에 신라시대 8암자가 자리 잡고 있고, 연꽃 형국의 지형을 일컫는 '연화부수형' 가람의 중심엔 팔상전이 있다. 중첩하는 8의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여 열반에 이르는 성스러운 길, 팔정도에 이어진다. 자연과 건축에서 8의 범주로 불교교의를 묵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팔상전은 법주사 8의 범주를 구현한 강력한 구심점으로 일승법계 부동의 자리에 있다. 불국 만다라로 구현한 가람의 중심에 금속 상륜부로 장식한 금자탑으로 솟구친 것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듯 일심으로 향한 귀의적 공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천주, 용으로 장엄한 수호신

팔상전은 기단부에서 금속 보주탑이 있는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22.7m에 이르는 5층 목탑이다. 층층이 짜 올린 적층식 구조가 아니라, 내부가 통으로 뚫린 통층식 구조다. 통층식 내부구조를 가진 목탑으로선 한, 중, 일 동양 삼국에서 유일하다. 단지 3층에 천정을 가설한 까닭에 3층 위로는 내부구조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 1968~1969년 완전해체를 통한 보수공사 과정에서 심초석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어 탑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탑의 구조를 살펴보면 판축으로 다진 바닥 한가운데 심초석을 놓고, 심초석에 탑의 중심 코어인 심주(心柱)를 5층 정상부까지 세웠다. 3개의 목재로 짜 올린 심주는 한 그루 전나무의 주간과 같이 모든 물리적 역학의 균형과 힘의 분산을 통제하는 건축구조의 중추에 해당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중심에 선 우주목이자, 불국토의 보주나무다. 왜냐하면 상륜부 금속보륜 찰주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심심주에 근접한 네 모서리에는 4층 높이까지 이르는 4개의 기둥을 우뚝 솟게 했다. 이 네 기둥은 심주를 호위하는 사천왕 형상의 이미지를 빌려 '사천주(四天柱)'라 부르는 매우 특별한 기둥이다. 목탑 내부에 막상 들어서면 심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사천주 사면을 심벽치기로 벽체를 쌓아 올렸기 때문이다. 대신 이 사천주들이 하늘로 치솟는 웅장한 위용을 볼 수 있다. 사천주 기둥마다 용틀임하며 힘차게 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장엄해서 심리적 위용을 배가하고 있다. 건축구조의 실용적 필요성을 수호신의 위상으로 전환시켜 종교적 교의와 성스러움으로 승화해 놓은 것이다. 그때 사천주는 곧 용으로 표현한 불국토의 사천왕에 다름 아니다.

가구구조 뼈대의 유기체적 생명력

하늘로 솟구친 거대한 직육면체와 사천주는 수직 입방체의 힘과 확고부동한 중심성을 드러내는데 대단히 유용해 보인다. 노출된 가구구조는 투박하다. 하지만 통층의 공간구조를 짜나가는 역학적 가구들은 공간을 주도면밀하게 해석하며 규칙적인 질서로 조화롭게 엮고 있다. 가구부재들의 짜임은 마치 인체의 뼈대처럼 대칭적이며 공간위상학적인 유기성이 돋보인다. 중층의 반복과 대칭의 패턴 속에서 광대무변의 우주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고저장단의 리듬감을 갖춘 뼈대에는 힘과 에너지가 흐른다. 건축이 유기체로 살아있다.

팔상전 외부 1, 2층의 네 모퉁이 귀공포 구조는 건축에 신성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데 얼마나 주의 깊은 공력을 기울였는지를 환기시켜 준다. 지붕 추녀의 하중을 받치는 포작을 용틀임하는 용의 역동성으로 기막히게 대체했다. 용의 몸통은 내부로부터 박차고 나와 중중의 'ㄹ' 자로 힘차게 용틀임해서 붉은 보주를 취하고 있다. 역학적 가구구조를 예술적 미학으로, 종교장엄의 신성으로 끌어 올렸다. 2층의 귀공포에는 뿔 달린 사람 형상의 동물이 연잎을 딛고 앉아 지붕을 받들고 있는 특이한 장면을 조영해뒀다. 그 모티프는 강화도 전등사 대웅보전의 나부형상과 동일하다. 귀공포에서 추녀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인물상은 12세기 중국의 토목건축 책 〈영조법식〉에서 말한 '각신(角神)'에 다름 아니고, 고구려 벽화고분 삼실총 등에서 하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신령한 역사(力士)와 다르지 않다. 팔상전의 각신이 특별한 점은 입에 청룡을 물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이다.

또한 내부 가구부재에 입힌 석간주나 황토색 계열의 단청색채는 따스한 질감으로 가구부재를 육화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 단청의 색채가 목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팔상전에서 단청장엄은 3층 천정장엄에 역량을 쏟았다. 통층공간에 천정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내부공간의 감각을 조성하고, 공간에 신성함을 부여할 단청장엄의 화면도 새로이 마련하게 되었다. 3층 천정에 조영한 단청 소재는 용, 연꽃, 그리고 보상화 넝쿨문양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그런데 단청으로 장엄한 연꽃과 넝쿨은 더 이상 자연의 묘사가 아니다. 자연의 생태를 초월하여 관념적 이상으로 승화된 교의적인 장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화의 한가운데 신라 와당에서 표현되던 길상의 고전문양을 베풀어 둔 까닭이다. 부처님께서 밝힌 법의 진리, 혹은 자비의 상징성으로 두루 빛나고 있는 것이다.

〈사진작가〉

謹賀新年
Season's Greeting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

부처님은 왜 돈을 '복' 이라 하셨을까?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③ '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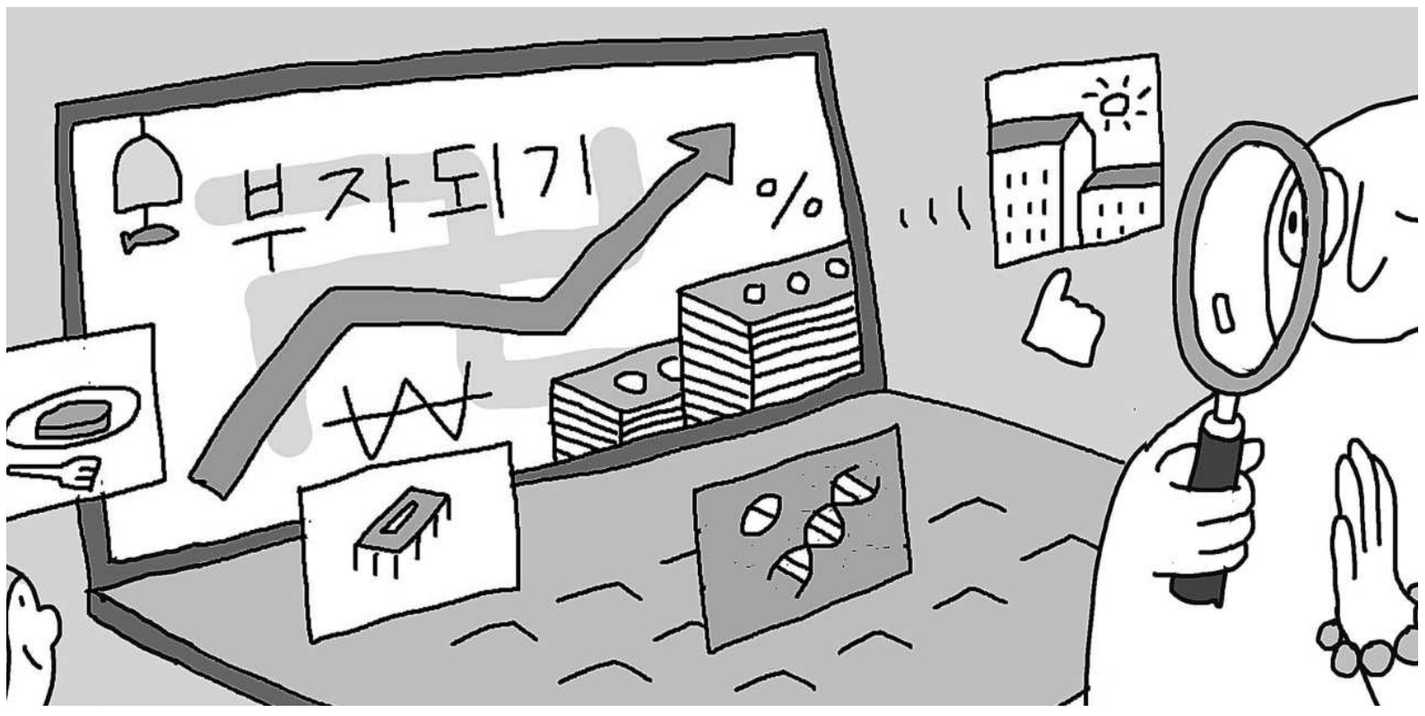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화려한 직장 생활이나 권력의 정점은 아니더라도 높은 자리에서 거침없이 살던 사람일수록 우울증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은퇴하면 뭐 할거냐는 질문은 나이든 사람이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은퇴하면 편하게 사는게 좋을까 계속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게 좋을까?

〈나는 몇 살까지 살까?〉라는 저서는 1,200명을 어렸을 때부터 8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다.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교수는 평생 연구하다가 제자에게 물려주고 제자는 또 제자에게 물려줘서 80년을 지속했다. 연구에 의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 행복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대한민국에 행복한 사람은 제법 많을거다. 빈부 격차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죽을 때까지 일하는게 건강에 좋고 행복하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돈은 멀리 할 이유가 없으며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불교의 경제관을 말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중엔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어떤 사업가는 나이가 들어 아직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사업은 그만두고 노후를 보내라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유난히 돈에 집착하여 사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아직도 '돈, 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내 말을 듣고는 이제 당당하게 죽는 날까지 돈을 벌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부자를 조사한 결과 부자는 대부분 기념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노후에 은퇴하지도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했다. 어떤 사업가는 나에게 '나보고 왜 계속 일하느냐고 하지만 이만큼 재미 있는 일이 없어요' 라고 했다. 사실 아무리 재미 있는 일도 계속하면 재미 없지만 일은 평생해도 재미 있다는 사람이 많다. 매일 놀면 금방 재미 없어지지만 일하면서 틈나는대로 놀면 노는 순간이 너무나 즐겁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는 순간이 재미 있는데 잘못 생각하여 놀기만 해야겠다고 일을 그만두면 노는 생활도 얼마 안가 지겨워진다.

예술가가 죽는 순간까지 작품활동을 하면 훌륭한 일로 칭송을 받는다. 피카소는 90이 넘도록 살았는데 90이 넘어서도 작품활동을 했고 사람들은 예술적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피카소를 이야기한다. 미국 대학은 정년퇴임 제도가 없기에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교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70 전후에 은퇴를 한다. 유명한 석학 중엔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연구하기도 하는데 워낙 학과에 기여를 하니 나이가 들어 은퇴하지 않는다고 후배교수들에게 천대를 받는 일은 없다. 실력도 없는 교수가 은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학과 회의에서 젊은 교수들이 면박을 주어 스스로 은퇴하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버클리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 버클리대학에 있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교수 중 한 명이 80세가 넘어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교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제자가 문병 오자 논문 주제를 같이 의논해서 다른 문병 온 학생을 감동시켰다. 그야 말로 죽는 날까지 학문의 길을 갔다는 모범적 에피소드다.

예술이나 학문 뿐만이 아니다. 테레사 수녀도 죽는 순간까지 인도의 빈민가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에서 죽는 순간까지 환자를 치료했다. 만약 어떤 사업가가 죽는 날까지 돈을 벌었다고 하면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기보단 노욕을 부렸다고 손가락질 당한다. 돈 버는 일처럼 더러운 일은 한시 빨리 손을 떼고 은퇴한 뒤에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걸까? 100세 시대에 죽는 순간까지 일하는 것은 미덕이 아닐까? 가뜩이나 수명 연장으로 노인세대를 봉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계속 일하는 노인은 사회의 귀감이 아닌가? 그러나 사회는 죽는 날까지 돈을 버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돈에 대해서는 존중의 마음이 없는가보다. 모두가 '돈, 돈' 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돈을 버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 원수 같은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다보니 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 게다가 깨끗하게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사업가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다.

부자 대부분이 평생 일해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
인생서 '돈' 버는 지름길

부처님은 '돈' 가치 평가 안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돈'
편견없이 벌고, 좋은 일에 쓰자

돈을 번다는 일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다. 강제로 돈을 옮기면 강도이고 몰래 옮기면 도둑이다. 강도나 도둑이 아니면서 돈을 이동시킨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돈 버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세계만큼 치열하고 힘든 세계가 있을까 싶다. 사업의 세계에는 왜 그렇게 똑똑하고 기발한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 그뿐인가. 독하고 모질고 안면몰수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거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돈이라면 치를 떨고 원수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 같은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이 많이 벌라고 하셨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부처님은 〈별역잡아함경〉에서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고 설하셨다. 나는 처음에 이 구절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내가 생각하던 불교 경전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었다. 그리곤 곧 '어쩌다 한 번 말씀하신 거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유사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자 나는 의아해졌다. 별역잡아함경은 아함부 경전이다. 아함부 경전은 한국에서는 재가자 출가자 모두 읽지 않는 경전이다. 한국의 불자는 주로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같은 대승불교 경전을 읽는다. 이에 비해 아함부 경전 같은 초기불교의 경전들은 세련미가 떨어지고 다소 투박하다.

대승불교 경전은 비록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부처님이 쓰신 것 같은 형식을 빌어 후세의 불교인들이 서술한 것이다. 거의 모든 대승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문헌학적 연구에 의하면 부처님 사후 후세 사람이 쓴 경전이다. 따라서 대승경전에 쓰인 내용은 불교적이 아니라는 '대승비불설' 논쟁도 있었다. 비록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은 아니지만 불교교리에 기반하여 쓰여진 경전이므로 불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함부 경전 같은 초기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므로 '부처님 직설'이라고 한다. 아함부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경전이다. 초기불교 경전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후기에 쓰여진 대승불교 경전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재미 있는 차이점이다. 부처님이 경제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경제의 중요성을 간과했거나 경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여튼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초기불교 경전을 제외하고는 경제에 대한 구절이 거의 없다. 어쩌면 그러한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와서 오늘날 불자들도 경제와 불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부처님의 경제관에 대해 '부처님의 부자수업' 이라는 책을 쓰고 난 뒤에 여기 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강연 내용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불교와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은 탓인지 화를 내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전에서 재물이나 돈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전에 재물이나 돈에 관해 쓰인 내용을 읽어보면 결코 깨달음을 비유하신게 아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 농업만이 아니라 장사, 목축,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재물이나 돈이 깨달음이라면 구태여 이런 사례를 들 필요가 없다.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면 세상이 온통 '돈, 돈' 하는데 '불교 너마저도?' 라고 한탄할 수 있다. 돈이 분명 원수지만 돈이 문제는 아니다. 불교의 세계에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 따라서 돈이 나쁘거나 돈이 좋은 것은 아니다. 불자가 평생 수천번 낭송하는 반야심경에도 '모든 것은 공하여 ...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라고 설한다. 돈도 마찬가지로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우리가 괜히 돈 탓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 나보고 누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느냐고 물으면 '돈이 좋잖아요' 라고 말하겠다. 부처님도 돈이 좋은 것이니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신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욕망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돈을 많이 벌라고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하셨다. 돈이 왜 좋은가하면 돈이 많으면 복 받은거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효도도 쉽게 할 수 있고 보시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금색왕경을 보면 죽음으로 인한 고통(死苦)보다 가난으로 인한 빈통(貧苦)이 더 크다고 한다. 돈을 벌면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돈은 자유로운 권력이라고 표현한다. 돈만큼 욕망을 충족하는데 자유로운게 또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연말 선물로 가방을 주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가방을 싫어하면 선물로서는 실패한다. 그 사람이 가방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라면 역시 선물로서는 실패다. 조금 더 선택의 여유를 주기 위해 상품권을 주어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으니 여전히 제약이 많다. 제일 좋은 선물은 현금이다. 현금을 받으면 가방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물할 때는 누구나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돈이 있으면 좋은 물건 살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어떤 물건도 살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3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8년 불교학과 52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8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②불교문화와 포교 ③선불교 ④근본불교(아함경 2) ⑤반야심경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김형준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 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화엄경 ⑪정토불교 ⑫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 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1월 15일 부터
■ 문 의 : 사무처 02)732-1206 ~ 8 FAX 02)732-1207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3월 6일(화) 오전 11시
• 불교미술학과 (2년과정)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3월 7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반 (2년과정) 3월 10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라훌라 공부를 성숙시키는 부처님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⑤ 〈라훌라경〉

〈잡아함경〉은 구나발타라의 번역으로 50권 1,362경이며, 〈상윳다라 니까야〉는 2,875(혹은 7762, 2889, 2908, 2904)경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56개의 주제별로 교학과 수행, 인물,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 수행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참수행자와 초발심한 재가자, 비불자들을 위한 법문이기보다 이미 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교학과 수행이 깊어져 가고 있는 구참수행자들을 위해 깨달음의 실현 방법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경전이다.

라훌라는 7살에 사리불을 은사로 출가하여 개구쟁이 시절에 수행자들을 애먹이다가 부처님께 첫 가르침을 들으니 〈중아함경〉(암발랏티까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이다. 발 씻는 물이 담긴 그릇을 통해 고의로 거짓말하면 하찮은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말씀과 거울의 비유로 항상 자신을 관조해야 청정한 수행자가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 라훌라는 정진을 시작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조용히 배우기를 좋아하는 비구 가운데 라훌라가 제일이라고 하여 밀행제일이 되었다.

〈잡아함경〉 인물편의 〈라훌라경〉이 세 편(8권 198,199,200)이 있는데 라훌라의 공부가 성숙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부처님, 의식이 있는 제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보아야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오만으로 가득한 번뇌와 망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망상이 사라지면 차별된 생각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참 좋은 질문을 하니 기특하다고 칭찬하신다.

"네가 보고 느끼는 그것이 물질이든 과거, 미래, 현재 혹은 안이나 밖이나, 혹은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라. 오직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거라. 그렇게 보면서 '이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알음알이로 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몸과 모든 인연들이 나라는 생각도, 내 것이라는 생각도, 오만으로 가득한 망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이 차별된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에 대해서도 애착하지 않게 되어 곧바로 해탈할 수 있단다."

라훌라는 그렇게 차별 없는 경계에 들어가 행복해질 때 쯤,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한다.

"부처님, 저를 위해 거룩한 법문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 듣게 될 법을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정진하며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도 다 이루어 할 일을 마쳤으니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수행이 높아지도록 큰 가르침 주소서."

이 말은 들으신 부처님은 라훌라의 마음에 해탈할 지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증상법(增上法)을 주어도 소화할 수 없음을 아시고 물으셨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오온(五蘊)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있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을 위해 나를 구성하는 오온에 관해 가르치고 오너라."

부처님은 그로부터 계속 라훌라에게, 육근(六根)을, 니다나(Nidana 인연, 연기)에 대해서도 가르치라 하셨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위해 가르쳤던 법에 대해 홀로 진중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헤아리고 또 관찰하였다.

라훌라는 이론적으론 다 알지만 실제 수행이 모자란 것을 부처님이 수행이 깊어지도록 교육시키는 장면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가능하다. 우리도 부처님 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며 공부의 수준을 높여가며 멋진 불자가 되자.

〈서울 반야사 주지〉

'잠' · '배고픔' 이 곧 선지식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④ 생활 속 수행

선지식이 계신 수행 장소란 일반 선방처럼 정갈하고 조용한 도량이 아니었다. 지저분한 쇠똥 치는 젖소 목장이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목장의 일은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하였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지저분하다는 판단이 참이 아닌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이 참이 아닌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야 할 것이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두려움이 참이 아닌 줄 알고 부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당시는 1일 2식,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쉴 사이 없이 일하니까 오후가 되면 상당히 배가 고팠다. 선생님 몰래 밖에 나가 빵이라도 사먹을까?

"배고픈 거 어떡하지요?"

예상되는 선지식의 대답을 뻔히 알면서 또 묻는다.

"배고픈 생각이 참이 아니니 그 배고프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루 종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며 잠드는 시간은 약 10시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잠패기인 나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잠이 쏟아져 괴롭다는 생각 역시 참이 아니니 착각인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올라오는 각종 본능을 정성껏 바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본능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바쳐지며 배고픔이나 잠이 줄어드는 것이었다. 잠과 배고픔이 줄어들며 시끌시끌 끓어오르는 각종 생각들도 동시에 차츰 줄어 들었다. 마음이 점차 평화롭게 변하는 것이다.

이제 〈금강경〉 공부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공부법을 이제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 간화선 수행자들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스승의 곁을 떠난다 하지 않았나? 나는 언제쯤 이 도량을 떠나서 홀로 서기 공부가 가능할 것인가?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목장의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나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오셨다. 스승없이 공부하는 것을 즐기며 며칠 동안이나 계속 선생님 방을 노크하지 않은 나에게 "매일 아침 법당에 들어 오거라"하는 말씀을 하시었다.

매일 아침 법문 시간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별을 내놓는 시간이었다. 내놓은 자신의 각종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거나 잘못된 사고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책을 하시어 해로운 분별심을 제거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이었다.

"소젖 짜는 일이 간단지 않습니다. 젖 짜는 방법이 젖짜기 어렵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침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여쭐 말씀이 없었지만 매일 법당에 들어오라 하시어 억지로 여쭌 말씀이었다.

"소젖을 짜며 부지런히 젖짜기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거라. 부지런히 바치면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일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다. 안된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바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되어 사라지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자 나의 질문꺼리는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동양학문과 서양학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양학문이란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밝은이들이 직관으로 말씀해놓은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요, 서양학문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치를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합리적으로 알도록 써놓은 학문인 것이다."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이요, 아무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 사서삼경을 말씀하신 공자님같은 옛 어른이 우주의 모든 이치를 잘 아는 밝은이의 말씀이라는 말에 다소 의문을 들었다.

"공자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우주의 이치를 잘 아는 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공자님은 불세출의 과학자라는 아인슈타인과 비교해서 우주의 이치를 잘 아는 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이 뭣고', 반야지혜 살려 쓰는 大活口

시(是)는 언전대기(言前大機)인 반야지혜로서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는 당처이며, 제불보살의 불모(佛母)로서 '이 뭣고'는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대활구(大活口)이다.

시 속에는 부처님 암호밀령(暗號密令)이 다 들어 있고,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구족(具足)되어 있고, 과거 억겁으로 부터 지어온 업장과 습기와 번뇌망상을 모두 녹여 주는 자가 발전소이며, 지혜광명이 천남(千萬)의 태양보다 더 밝게 항상 비춰준다. 또한 아프면 약사여래불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관세음보살이 자동적으로 되어준다.

'이 뭣고' 시심마(是甚　)는 내가 누구이며, 참나를 찾는 수행이며, 시는 인과를 벗어난 인과불락(因果不落)의 자리이다.

남악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 "시심마물임마래(是甚　物恁來)?"하고 물었다. 즉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니, 육조 스님은 입이 딱 막혀 대답을 못하고, "이 물건이 무엇인고?" 즉 '이 뭣고' 화두를 갖고 8년간 고행(苦行) 끝에 확철대오 하고 다시 찾아가 "설사일물즉부중(設似一物卽不中)"이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 "도리어 수증할것이 있느냐?" "수증즉불무(修證卽不無) 오염즉불(汚染卽不)=닦고 증(證)하는 것이야 없지는 않습니만는 오염(汚染)될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즉 일여 평등의 진리를 차별심을 갖고 자타(自他), 고하(高下), 시비(是非)하는 것은 없습니다고 하여 인가(認可)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이 뭣고' 화두가 유래된 것이다.

호미 들고 밭메러 가는 것도 생사해탈 도리
생활 속 마음챙김이 모든 장애 벗어나게 해

이후 대혜종고 스님에 이르러 간화선이 체계화 됐으며, 서장서 화두의 역할은 분별(分別) 망상(妄想)을 확실하게 때려잡는 무기(武器) 즉 청룡보검으로 간화선을 정의하였고, 좌선 만을 강조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화두를 놓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한암 스님의 서신 중에도 "꼭 부처님 앞에서 참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무를 보거나 일을 하는 복잡한 가운데서 득력하는 것이 적정한 곳에서 좌선하는 것보다 10만배나 더 힘이 있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강 선사께서도 "참선은 농사지으며 왜 못혀? 생활 참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 끊고 여의고 돌아와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이 뭣고만 하는 건 그건 쪼가리 참선이요, 절름바리 참선이요, 소승참선 이지, 대승참선이 아녀. 농부가 쟁기를 지고 논 갈러 가는 것도 생사 해탈의 도리요, 여인네가 호미 들고 밭 메러 가는 것도 생사해탈의 도리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도 생사 없는 해탈의 도리인데 일체가 무엇이 아닌 것이 있으리오. 뭐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고 내 찾는 법이 그려. 그저 '이 뭣고' 알수 없는 놈 하나면 그만이여. 밥 먹고 옷 입고 오고가는 소소영영한 주인공,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알수 없거늘 제가 무슨 이치를 붙여서 죽이지 말고,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알 수 없는 그 놈 하나를 갖고 비비고 나가라"고 하셨다.

간화선 '이 뭣고' 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에게도 정치나 사업, 직장, 학업등 에서 막히는게 없게 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장애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을 등지면 무엇을 하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만다.

그때마다 '아이고' 라는 자조와 한탄 대신 '이 뭣고' 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일 주 문



선화여고 기숙사 기공

돈관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스님은 2월 13일 오후 2시 동곡학원 산하 선화여고 기숙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불교상담대학 졸업식

가섭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2월 7일 오전 11시 개발원 대강의실서 2018년도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졸업식을 개최한다.



제9회 호국불교포럼

박정이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2월 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육군회관 태극홀서 '제9회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한다.



병불련 신년하례법회

류재환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1월 26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법당서 병불련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대구경북 합창단연합회장에

김영애 경북불교대학 불광사합창단장(법명 진여화)은 1월 26일 대구 보현사서 제16대 대구경북 불교합창단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종단협 사무총장에 삼론종 지민 스님

이사종단 최초, 마중물 역할 다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이사회서 이월된 안건인 사무총장 추천의 건을 다뤘다. 당초 사무총장 후보로는 상임이사종단서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와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이, 일반이사종단서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출사표를 던졌다.

재적이사 38명 중 33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에 이은 결선투표서 지민 스님 18표, 만혁 스님 15표로 지민 스님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지민 스님은 임명 직후 "29개 종단 화합을 위해 회장단과 이사종단의 가교가 되겠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겠다. 그동안 과격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참회를 올리겠다"며 대중을 향해 3배 했다. 이에 따라 지민 스님은 2017년 2월 종단협이 사무총장 자격을 상임이사에서 일반이사까지 넓힌 이후 처음 사무총장직을 맡은 일반이사가 됐다. 임기는 3년이다. **윤호섭 기자**



"스리랑카 복지타운으로 조계종 이름 새길 터"

Interview

스리랑카 복지타운 신임관장 각원 스님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스리랑카 방문, 복지관 업무 전부 처음이지만 걱정 없어
전임자 다져 놓은 내실 위서
현지 교민·불교계 교류 증장

"스리랑카 방문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을 전임 관장스님들께서 잘 만들어놓고 기반을 다져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바탕 위에서 열심히 정진해 복지타운으로 한국불교의 외연을 넓히겠습니다."

1월 31일 前부산 미타선원장 각원 스님〈사진〉이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 관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 각원 스님은 복지관이 현재 운영 중인 고아원, 유치원을 잘 관리해 내실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현지 교민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해 한국불교를 더욱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각원 스님은 2월 19일 스리랑카로 출국한다.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다. 이 덕분에 동아시아 역사를 잘 알고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스리랑카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각원 스님은 "이전에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지만 해외NGO에 관심이 많고, 여러 공부를 한 바 있어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은 각원 스님은 "조계종 대표로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혹여 종단에 누를 끼칠까 걱정이 되지만 더욱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원 스님은 "현지에 한국교민 700여 명이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과 그분들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복지관의 내실을 바탕으로 현지 교민 분들과도 교류해 스리랑카 우호증진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은 2008년 파살라 지역에 조성됐다. 지진·해일로 부모를 잃은 스리랑카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마련됐으며, 위탁운영사찰 서울 도선사가 매년 1억5000만원의 운영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원 스님은 "올해로 스리랑카 복지타운이 건립 10년을 맞는다. 그동안 전임 관장스님들께서 좋은 뜻에 걸맞게 운영을 참 잘해주셨다. 이는 서울 도선사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도선사 주지스님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을 '스리랑카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복지센터'로 만들겠다는 각원 스님은 "관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며, 현지 스리랑카 불교계와도 협력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신심증장 율동, 지속 개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정상화 이끈 노휴 스님

불교계 유일의 레크리에이션 포교단체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불레협은 지난해까지 2년간 회장 공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노휴 스님〈사진〉이 지난해 협회장으로 취임하며 안정화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노휴)는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부회장 위촉 등 시스템 개편과 함께 문화포교 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장 노휴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동련보다 1년 빨리 창립된, 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라며 "다양한 요구에 맞춰 발달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에 불교 가르침을 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조계종 교육아사리이며 맘통화 명상놀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혜장 스님이 부회장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협회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실장도 공개모집한다. 노휴 스님은 "그동안 재정난으로 사무국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좀 더 발전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실장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회장·운영실장직 등 개편
지도자과정 수시 개장 눈길

불레협은 정상화와 함께 올해 30회를 맞는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 노래잔치를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공연무대로 진행한다.

노휴 스님은 "그동안 행사가 경연 위주였다면 올해는 공연 위주로 어린이 불자들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으로 폭을 넓히고 참가곡 또한 불교 사상을 담은 일반곡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등회 연희율동단, 안국동 무대 운영 등을 통해 불교문화의 다양성도 널리 알리며, 전문지도자 과정의 수시 개장 및 찾아가는 교육, 강습회 등을 통한 신규 지도자 발굴에도 주력한다.

노휴 스님은 "레크리에이션은 개발을 해야 하기에 후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개발하는 단계인 지금 불교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1985년 창립된 단체다. 33년 동안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바탕으로 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교육과 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양성, 연꽃노래잔치,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해 왔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 비구니 인재 34명 배출

승가대학·한문불전대학원 졸업식



청도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일진)은 1월 26일 경내 대웅전에서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제6회), 운문승가대학(제56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한국불교를 이끌 비구니 인재를 배출했다. 졸업식에서는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자용 스님 외 4명의 스님과 운문승가대학 영운 스님 외 28명 등 총 34명의 스님들이 졸업증서를 받았다.

이날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교와 스님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며 "승가의 수행력, 교화력도 과거보다 더 높기에 큰 전법사로 당당하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은 "중도의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오늘 졸업생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진실한 수행자의 삶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 동화사 총무국장 정연 스님, 박순곤 운문사 신도회장, 이승율 청도군수, 지역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운문사는 지난 1958년 강원 개설 이래, 현재까지 모두 2032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 봉축행사 준비워크숍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31일 증심사 템플스테이관에서 봉축행사 준비워크숍을 열고, 올해 진행할 2018빛고을관등회의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시각 스님(봉축기획단장), 혜월 스님(전통등기획단장), 동현 스님(연희기획단장)을 비롯해 봉축행사 자원봉사자, 불교단체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울림마당, 법요식, 제등행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토론했다.

워크숍에는 어울림마당에 참여하는 연희단 공연과 무대배치, 제등행진 시 유의사항 등 봉축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부터 율동 강습회 등을 시작으로 봉축행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5월 3일 점등식, 5월 12일 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대구 · 경북 태고종 화합 정진에 최선”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자운 스님 취임

태고종 대구경북통합교구 제2대 종무원장에 자운 스님이 취임했다.

태고종 대구경북통합교구는 1월 27일 김천파크호텔에서 종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구경북통합종무원장 자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지방종회의장 혜석 스님, 이철우 국회의원, 박보생 김천시장 및 종도회원 사찰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종무원장 자운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국장단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신임 종무원장 자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무원장 자운 스님은 교구 각 국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종무원장 자운 스님은 “태고종 대구경북 통합종무원의 위상과 불법 홍포를 위한 종도 화합, 수행정진에 최선의 노력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취임식인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격려사와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 호법원장 지현 스님의 축사, 법광 전법사의 발원문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홍보대사에 정율 스님

음성포교 기대… “기회 될 때마다 자비나눔 동참”

노래하는 수행자 정율 스님이 노(老)스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대사로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1월 29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성악가 정율 스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정율 스님은 향후 노(老)스님 의료비 지원사업, 네팔 어린이 자전거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구호사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광주 전남지역 불교계의 활성화와 홍보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노래하는 수행자 정율 스님(오른쪽 두 번째)은 빛고을나눔나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정율 스님은 “빛고을나눔나무에서 지금까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이 각박하지만 어려운 노스님들을 위해 마음 내주신 지역 불교계 단체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정율 스님 홍보대사 위촉은 평소 인연이 있는 도계 스님(광주 소원정사 주지)의 소개로 병환에 있는 노스님 의료비 지원 승보공양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정율 스님은 지난 1월 9일 승보공양을 위해 빛고을나눔나무에 500만원, 광주파라미타가 운영하는 동구청소년수련관에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범어사, 사천왕재 봉행 ‘안전 기원’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화재 재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범어사가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국가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31일 천왕문 앞에서 사천왕재를 개최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호법신으로, 범어사는 사천왕재를 봉행해 부산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했다. 특히 범어사 천왕문은 2010년 12월 방화로 전소된 적이 있다. 이후 2012년 3월 26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후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있어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이 됐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사천왕은 어린 아기를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중생을 적자와 같이 늘 생각한다”며 “어른을 잘 모시면 복이 오는 것처럼 사천왕을 기억하고 잘 모셔서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재앙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천왕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원주 석경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비 홍법’으로 일궈온 행복한 마을

부산 홍법사, 경로당 의료봉사 · 무료급식 13년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홍법사가 위치한 두구동 일대가 행복마을 일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 홍법사를 주축으로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사랑방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매월 2 · 4주 토요일, 봉사를 진행하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게다가 봉사자들의 숨은 봉사가 무려 13년차에 접어들어 더욱 훈훈함을 전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인근에 위치한 조리경로당에 1월 27일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 40여 명이 삼삼오오 모였다. 어르신들은 연일 계속되는 거센 한파로 매서운 날씨에도 경로당 방문을 빠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홍법사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팀 법연공덕회와 무료급식봉사팀인 묘행공덕회가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침을 맞고, 아픈 곳을 설명하면서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평소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셨는데 침을 맞고 나면 한결 편안하다는 감사인사도 빠지지 않았다. 어깨가 아파 팔 올리기가 불편했던 할머니도 홍법사가 효자라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경로당 밖에서는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해야 해서 추운 날씨에도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묘행공덕회는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 자신들이 십시일반 모아 냉장고와 싱크대 등 기자재를 모두 마련했다. 추운 겨울엔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봉사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 봉사자는 “조리 공간이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운 여름 벽걸이 선풍기만 있으면 부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크게 웃어보였다.

한의학과 교수 전문 진료
무료급식 위해 성금 모아
어르신 신뢰 · 봉사자 보람
“살아 있는 모범 자비도량”

홍법사는 2005년 1월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병원을 찾아 가려면 마을 어르신들이 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야해 번거로움이 많아 의료서비스가 필요해도 참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홍법사 신도 가운데 한의사가 있어 자발적으로 봉사팀을 꾸렸고, 현재는 동의대 한의학과에 홍법사 전문봉사팀이 있을 정도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동의대 한의학과는 이해웅 지도교수와 이상협 교수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봉사가 이뤄지고 있어 신뢰도 높다. 법연공덕회는 치료 가운데 필요한 제반시설과 어르신 건강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마을을 지키는 약사보살로 불린다.


홍법사가 위치한 부산 두구동 일대가 행복마을 일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 홍법사는 매월 2 · 4주 토요일에 의료봉사와 무료급식 봉사를 13년 동안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동의대 한의학과서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

봉사에 참여하는 한의대 학생들과 봉사자들도 “마음이 부자가 되고 보람차다”며 행복해했다.

김상원(본과3) 학생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서 만성질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린다 생각하니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봉사자 가운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도 보였다. 이 어르신들은 자신을 “행복 비타민 봉사 꽃할매”라고 소개한 뒤 “봉사 받는 나이, 주는 나이가 어디 있나. 봉사하러 나오는 이 모든 활동이 기쁨”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홍법사는 매년 의료진료비를 지원하며 한의대 학생을 격려하는 정기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방앗간을 직접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별미도 제공하고 있다.

조은영 묘행공덕회장은 “조리 도구나 시설이 좋지 않아 불편함은 있어도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에 불편함마저도 녹아버릴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복순 법연공덕회장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내 부모님 같아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게 된다. 이곳이 살아 있는 자비도량”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감사향기 가득한 겨울방학 됐어요”

(사)동련 어린이 · 청소년 동안거 ‘감사향기’ 회향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프로그램인 ‘내 안의 감사향기’가 회향했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1월 28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어린이 · 청소년 동안거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어린이 수행 서원문 낭독과 격려사 및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은 감사향기 책자 인증 낙관을 찍고, 108염주를 선물하며 참가 아이들을 격려했다. 이후 과자 만다라 만들기와 소감문 발표가 이어졌다.

‘내 안의 감사향기’ 안거는 방학기간 동안 일기처럼 감사 내용과 참회 내용을 적어 하루를 돌아보고 간단한 사불, 사경, 진언 등을 통해 수행하고 도반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학생들은 21일 겨울방학기간 동안 매일 감사한 내용을 찾아 적으며 새로운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감사향기 책자에 인증 낙관을 찍어주는 스님과 이를 바라보는 참가 학생들.

이수빈(낙동초4 · 관음사) 학생은 “잃어버린 영어책을 찾게 돼 부처님께 감사했고, 수학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집중했던 것도 감사했다”며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수(영천초2 · 홍법사) 학생은 “감사 이야기뿐 아니라 부처님께 하루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해서 좀 더 성실하게 방학생활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안거는 부처님 당시 오래전부터 해왔던 수행”이라며 “하루하루 감사함을 찾는 동안 소소한 주변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란 걸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행복이 가득했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 수행을 하는 동안 더욱 성숙하고 성장했을 것”이라며 “감사향기가 또 하나의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거 회향법회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장 능후 스님을 비롯해 김해 여여정사 · 관음사 · 법륜 유치원 · 홍법사 등 자모 회원과 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여래사불교대학 환우 위한 나눔 봉사

제8회 인창병원 환우방문

부산 여래사 불교대학 학생들과 총동문회 회원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환우 쾌유를 기원했다.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은 1월 30일 ‘제8회 인창병원 환우방문’을 진행하고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먼저 각 병실을 방문해 환우와 병원 종사자들에게 카스텔라와 두유 등 간식을 나누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투병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쾌유를 빌기 위해 매년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소재지인 부산 동부 지역의 복지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인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제 12 기
송강(松江) 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學人)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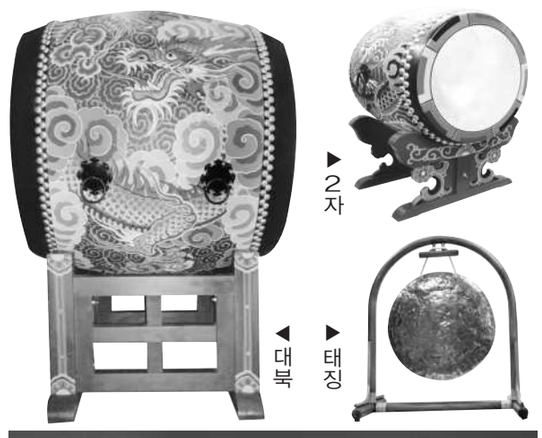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길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천대천세계의 사나운 불 속이라도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그 속을 어려움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다.

- 무량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승진운,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범패 교육도량
범음범패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정근북(양고장)
송주북 (각단 예불)
사찰 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어렵고 힘들땐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
원인사+조상찾는법
단기간에 책임지도
(지리산 현담)
010-4540-0061

토종하수오
진액 판매
(약사사)
010-9692-5775

종 도 모 집
불교승가여래종
가족처럼 불교승가여래종 종단과 함께할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종무원도 모집합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3길 6-4 동경사
010-6562-1577
팩스 055)933-1576
(의식도 전수합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특 강
숫자로 보는 생활철학
• 수시모집 : 2018. 3월
• 개인지도(매주)
• 화,금 18:00 ~ 20:00(12주) 50만원
• 대구은행 010-3527-1037 서일영
영도기문철학
010-3527-1037
대구 남구 안골길21 안지랑역 3번출구 5분

寺 포교원 부전 명리 요양원
대출(2금융권)상담
서울 경기지역
010-5381-1419
경상도지역 광고 같이 할분 찾음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8620-43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011-803-2626
055-353-614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010-3525-9919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 환영)
010-8576-4450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269-368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거제)
010-5212-4533

비구니스님, 보살님.
40~50대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거주비 무료, 임대가능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도깨비 부리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특수 실전 강의 안내
천지운기 육입법. 백초귀장술. 파동에너지 성명학
주택풍수 2개월 과정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전가능
중요문화재 제 50호 특수작법 강의 안내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 법고무. 막바라. 화이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를 지도하여 드립니다. 3개월이면 실전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특수실전강의에 도갑스님 010-2693-6585
오후 2시부터 특수작법강의에 지원스님 010-7557-2568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1길 3 천명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맛 샘나 식물성 콩고기
최신 국내기술로 만든 식물성 조직 콩단백 효모와 항산화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소화흡수 충분한 고단백질 영양섭취
전립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주문전화 1661-4288
농협 301-0222-880671 (주)샘나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역술 강좌안내
고려육임학회, 동양주역역술학회
한국신선기공천수원 공동
육임 · 사주명리 · 신선기공 강좌
개강 및 무료 강좌 일시
2018. 3. 5(월) 오전 10시 30분(사주명리)
2018. 4. 3(화) 오전 10시 30분(육임)
※ 각 강좌의 첫 수업은 무료 강좌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과 목	기간	강의 주안점	교 수	수강료
사주명리 초급과정	3개월	사주명리 기초 이론 (신살오행사주론)암기법	동양주역 역술학회장 남륜 박사	월 13만원
육 임 초급과정	3개월	육임 기초력 정립	육임학의 대가 고려육임학회장 이우산 박사, 교수	월 13만원
신선도수행법 (연기법)		수업전후 20분간 수련 (사주, 육임 등록자 무료)	지도법사 원이 (20년간 수련지도)	무료

안내전화
육 임 010-7321-5539 (이우산교수)
명 리 010-9091-8259 (남륜)
신선기공 010-5096-0759 (원이)

강좌장소
안양역에서 도보 7분거리
안양여중고 사거리 옆
정형외과 건물 402호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고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은혜를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 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 중아함경 –



포항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토지. 임야 7.000㎡ 주변 산사찰. 위치 좋고 교통 편리함.
- 양도 : 10억원. 버스 주차 가능함 (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지리산 사찰(급) 안내
- 산중 기도 사찰 • 토지 18.000㎡
- 요사채. 목조법당. 목조삼성각
- 지대높은 기도사찰. 깨끗하고 주변 경관 좋음
- 조용하여 수행하기좋음
- 양도 : 9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도심 속 작은 사찰 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울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5불, 등 320등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신중단, 영단(시설최고)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60만 시설비 4,000만원

010-8424-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8억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시내에서 5분 거리)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기도방 6칸, 친견실, 산신각, 창고, 일주문
- 가액: 5억 8천만(직통전화)

010-5920-5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 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 : 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1200평) 9,000만

010-2016-6281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능

010-6603-1456

멋진2층 상가주택 토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717평방
- 건평 : 1층 상가 149.99 2층 주택 81.75
- 가액 : 3억 2천만원 (4천만원 빼드림)
- 대출 : 1억포함(조정가능)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 춘천
- 포교원 및 텃밭 포함 80평
-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3,200만원, 30만원(월세)

010-6321-1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다대포 위치
- 6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주위 대형 병원, 아파트 밀집지역
- 현재 운영중

010-5267-4937
051-266-493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동부산관광단지 요지
- 바다전면 105평(실77평), 신축건물 3층 주차 50대, 엘리베이터 2
- 법당, 공양정, 친견실, 방3(욕실)
- 가액 : 보 2,0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3,500만원(협의)
- 몸 만 오시면 됩니다

010-2065-3338

촌 집 안 내
- 위치: 진주시내 촌집. 건물3동
- 위채 방 2칸,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 아래채 방 3칸 (창고 1칸, 방 1칸)
- 양도가 : 5,000만원 (절충가능, 스님상주)

010-7702-6296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여래원. 함께 할 가족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 3안길 138
- 2대주지스님 모십니다
- 명상센터 (명상지도스님이나 재가불자)
- 극락전.명부전(영가전을 이끌어가실 스님)
- 공양주 모심. 처사 모심(소액 지불)
- 본인소개서 지참 방문 상담

문의 : 010-3546-039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 주차, 시설 완비

010-9421-936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구입문의 | 02) 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 현대불교신문사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토지 및 건물 안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1
건평 약 30평(암자 및 절)
토지 약 2,000평(국유지)
양도가 4억 5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55-3
건평 40평 토지 1400평
양도가 18억 5천 (분할 판매가능)

연락처 : 010-8868-167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 대불교 현불샵

세계적 인터넷 서점 Amazon서 순위권…

〈초기불교입문〉 영문번역자를 만나다

"美 명상 열풍 중심에 초기불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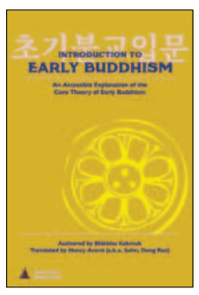
E-mail 특별 인터뷰 **재미교포 낸시 어코드**

한국말 서툴러도 불교는 잘 알아…
불교는 모태신앙, 조계사서 공부도
미국서도 쉼 없이 불교공부 정진해

초기불교 기본에 둔 응용불교는
현재 미국서 굳건히 자리잡아…
서양에 맞지 않는 체계는 없애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미국에 정착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입문〉의 오디오북이 영어로 번역돼 구랍 28일 미국 현지에서 출판됐다. 출판 즉시 세계 최초 · 최대규모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 입점했으며, 1월 18일부터 이 오디오책은 아마존의 '상좌부 불교(Theravada Buddhism)' 부문 인기 1위를 유지 중이다. 낸시 어코드(Nancy Acord, 한국이름 손동란)는 〈초기불교입문〉을 영문번역했다. 낸시 어코드는 자신이 평생 불자로만 살아왔다고 한다. 본지는 낸시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불교 여정과 미국 현지의 불교계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아마존'에서 초기불교 오디오북부문 1위를 유지 중인 〈초기불교입문〉영문판.

Q 한국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재미교포다. 대부분의 한국계 이민자들은 원활한 미국생활을 위해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 된 기독교를 택한다. 어떻게 불교를 선택할 수 있었나?

A 대부분 이민자들은 기독교를 택하기에 미국에서 언제나 나 홀로 불자였다. 불교는 나의 모태신앙이다. 어린 시절, 집안에서 서울 아차산의 영화사를 지어 근처 전답까지 모두 포함해 스님들께 보시했다고 들었다. 사촌들도 절을 보시하기도 하는 등 집안이 불교에 푹 빠져 있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어려서 할머니 따라 절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조계사 고등학생 불교모임에 참석하곤 했다.

Q 미국서 불교공부는 어떻게 지속했고, 어떻게 〈초기불교입문〉을 번역했나?

A 40여 년 미국에 살면서, 한국서 하던 불교 공부를 혼자 지속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일을 그만두고 초기불교를 접하게 됐다. 그리고 2007년, 50살이 돼 초기불교가 내 길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때부터 초기불교 경전을 읽고, 법문도 들었다. 이렇게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던 중 각묵 스님과 인연이 닿았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입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게 됐다. 현재는 세계 170국에서 영문판 전자책으로 출판됐다.

Q 미국서 현재 성행하는 불교의 종류와 그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A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불교가 들어와 있겠지만 특히 초기불교, 티베트불교, 북방불교(대승불교) 등이 성행중이다. 미국의 불자는 동양계 이민자 중심의 이민불교와 미국 엘리트 중심의 엘리트불교로 구분된다.

미국서 불자의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힘들다. 종교로 불교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불교 책을 읽고 명상하고 불법(佛法)강의를 듣는 사람의 숫자는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서점에서는 불교서적이 잘 팔리고, 명상센터 · 요가센터는 미국인으로 붐빈다. 미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요가관련 월간지인 '요가저널'은 3천6백만 명이 주기적으로 요가와 명상을 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11%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국민이 요가와 명상에 쓰는 비용은 2016년 기준, 1년에 160억달러(한화 약 18조원)라고 발표했다.

Q 초기불교는 미국에 어떻게 전래되기 시작했나?

A 초기불교는 미국에 1800년대 말 쯤 소개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미국인들이 직접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에 가서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을 배우고 돌아와 초기불교를 펼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서 실제로 출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 이 분들이 미국 초기불교의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이 분들이 불교를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현지 정서에 맞는 합리적, 논리적, 상업적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은 '현생의 행복'에 중점을 뒀다. 부처님은 현생의 행복이 계와 보시, 그리고 자신에 어울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대부분 기독교와 친숙한 미국인들은 십계명이나 보시, 봉사에는 이미 적응돼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챙김 수행'을 더한 것이다.



〈초기불교입문〉을 영문판으로 번역한 낸시 어코드.

Q 현재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챙김'이 초기불교에서 유래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미국사회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마음챙김 명상 · 요가 등의 응용불교는 초기불교에 기본을 두고 있다. 초기불교를 전파하던 사람들이 처음 불교를 전파할 때, 남방불교를 아시아에서 있는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 종교체계, 전통, 풍습 등은 전부 빼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미국에 정착시켰다.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으로. 이런 관점에서 마음챙김은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상업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마음챙김이 상업화 됐고,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프로그램을 팔아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사실 응용불교를 이해하는데 초기불교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마음챙김 명상이 초기불교 수행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서 초기불교는 현대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존경받는 추세다.

Q 앞으로 미국에서 불교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 예상한다면?

A 오늘날 마음 챙김 명상을 가까이 하며 자라는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불교 수행의 기본이 갖춰진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고 미래에 불교를 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무료로 편하게 잠시 수행하고 초기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 공간이 동네마다 생기면 스님과 재가 지도법사들이 가르칠 곳이 많이 생길 것이다. 많은 불자들이 함께 초기불교의 선구자가 돼 행복을 찾고 주위에도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中옥불사 성도재일 납팔죽으로 '훈훈'

2009년부터 지속된 연례 죽 나눔 행사

개시 전부터 불자들 문전성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

중국 상하이, 옥불사서 성도재일에 진행한 납팔죽 무료 나눔에 옥불사 인근은 훈기가 가득했다.

'중국신문망'은 1월 24일 상하이 3대 사찰 중 한 곳인 옥불사(玉佛寺)에서 성도재일을 맞아 죽을 무료로 보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옥불사는 1월 24일 오전 '함께 먹는 납팔죽(臘八粥), 함께 조화로운 길상한 해'라는 이름으로 성도재일 기념 죽을 절을 참배한 대중에게 무료로 보시했다. 납팔죽이란 납월 8일, 즉 성도재일에 먹는 죽이란 뜻으로 다섯 가지 곡식과 일곱 가지 과실을 넣어 만드는 귀한 음식이다. 기록에는 중국에서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당나라 때 절에서만 먹던 것이 송, 명을 거쳐 민간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불사는 지난 2009년부터 성도재일 전후로 날을 잡아 납팔죽을 쑤어 산문에서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에 보시한 시주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자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취지다. "자비로써 세상을 구제하고, 사회와 대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신심과 선행을 바르게 행하려 한다"고 옥불사 측은 전했다.

올해로 10년이 된 이 행사는 사회각계로부터 열렬한 성원을 받고 있다. 매년 성도재일을 기하여 옥불사에 와서 죽을 한 그릇씩 받아가는 것이 상하이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의 성도재일도 옥불사의 대중스님들이 직접 5천인분의 죽을 준비했다.

오전 9시 반. 죽 보시가 시작됐다. 이미 옥불사의 산문 앞엔 많은 불자, 시민, 관광객들이 일찍 와서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스님들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죽을 떠주며 "길상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산문에서 보시가 시작됨과 동시에 옥불사의 납팔죽은 상하이 시내의 경로원과 사회복지원등에도 배달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10대들, 卍에 푹 빠졌다!"



일본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卍)자는 춤이나 도시락에도 사용된다.

어린아이들 사진 구호로
여학생들은 SNS 사진에
"모양 귀엽고 발음 친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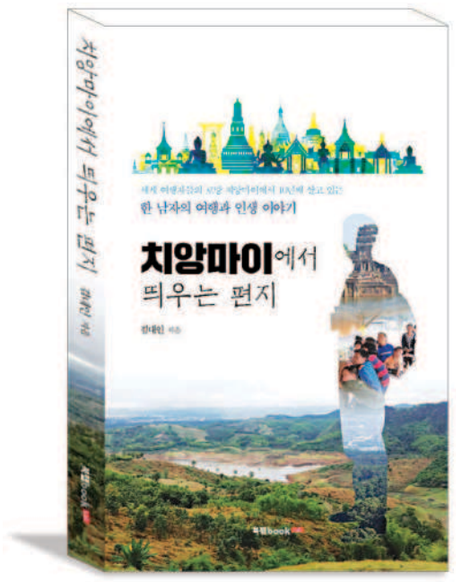
길상, 사찰, 또는 불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만(卍)자. 이 만자가 일본 청소년들의 SNS를 수놓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 '고타쿠'는 "만자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속어로 쓰이고 있다(The Buddhist Swastika Becomes Popular Slang In Japan)"고 1월 29일 보도했다.

만자는 일본어로 '만지'라고 발음되는데, 일본 어린아이들은 사진을 찍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김치'하고 말하는 것처럼 '만지'하고 말한다고 한다.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한데, '흥분하기 쉬운 성격의 무례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류층', '강해 보이는 사람' 등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만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따로 있다. 일본 말 중 '진짜?'라는 의미의 은어로 쓰이는 'マジ'는 만자의 일본 발음과 비슷한 '마지'라고 읽힌다. 여기에 착안, 만자도 '진짜?' '대단해'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본 여학생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개인 SNS에 사진을 게시할 때 사진에 '卍' 스티커를 붙이는 일은 다반사다. 이런 유행은 학생들 사이에서 2016년부터 인기를 타기 시작해 가장 인기 있는 유행표현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도 여전히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으며 만자를 활용한 춤, 도시락도 나오고 있다. '고타쿠'의 일본 현지 인터뷰서 한 10대 여학생은 "만자의 모양이 귀엽고 발음이 친숙해 많이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고집멸도 깨달아 번뇌서 벗어나자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2) 깨달음 가는 地圖 명상 ②



地圖 명상하기 실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地圖) 명상'은 출발과 과정과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쭉 보여주며 본래의 면목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의 지도(수행의 지도)이다. 깨달음의 지도는 명상의 동기를 가지게 하고 마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각 개인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는 무명이 섞인 광석을 녹여 마음순금(청정심 · 심광명)을 추출해낸다.

각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 가능성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의 근원인 심광명(心光明)으로 돌아가게 영향을 준다. 심광명은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무지와 번뇌를 소멸하여 생사가 없는 영생의 지혜를 얻고 생로병사 하는 삶 그대로 영생임을 깨치게 한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은 밖에서 안으로,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현상에서 본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며, 이 지도를 보고 우리는 (수행의)결의를 다지고 명상할 수 있게 된다.

깨달음의 지도는 깨달음 속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즉 수행자가 깨치고 나면 원래 깨달을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되며,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 아닌 것이 없어서 원래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수행하게 되면 바른 수행의 길에서 어긋날 수 있다. 깨달음은 무명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그 꿈속의 일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깨달음의 지도를 알고 수행하면 꿈을 꾸면서도 꿈속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시작죽비를 3번 치고 좌종을 1번 친다.

반가부좌나 평좌 또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곧추 세운다. 눈은 반쯤 뜨고 시선을 코끝에 잠시 둔다(10초). 순간 집중의 명상이 조금 숙달되면 시선을 호흡에 둔다. 들숨과 날숨을 두세 차례 정도 지켜본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증가한다.

좌종을 치는 이유는 좌종소리를 들으면서 시각화하여 사유하는데 시간을 재기 위해서다. 보통 좌종소리는 30초~1분 정도의 길이다. 그리고 좌종은 명상의 분위기를 잡아주며 잡념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좌종이 굳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초보일 때 명상언어로 길잡이 해줄 때 필요하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의 내용이 익으면 좌종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은 글로 쓰면 길지만 명상 중에는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 우선 명상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자.

사유하기와 시각화하기

①범부의 깨달음

◎ **좌종을 친다.**

○ 부모의 보호아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집을 버리고 어린 아이로 가출하여 여러 지방, 혹은 여러 나라를 헤매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것을 시각화한다.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차별이 없는 집을- 나가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고 그 온갖 욕망이 흐르는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무지와 탐욕과 분노를 표출하는 말과 생각과 감정으로 건립된 사회를 또는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욕망과 탐욕과 분노가 표출한 문화충돌과 환경오염, 테러 등의 온갖 괴로움의 현상을 본다. 계층 간의 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면서 불평등을 시각화해 본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떠올려보고 자살과 우울,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연일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삼포세대 등 오늘날의 절벽사회도 되돌아본다.

온갖 욕망이 만들어낸 이런 사회현상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생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어렵고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상호의존하는 것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없다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인 것이다. 우리 무지의 마음이 만든 꿈인 줄 모르는 것이다[不覺].

명상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흐름 먼저 그려 잠재력 본다
시뮬레이션으로 길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 멈추게 해보자

여기저기 떠돌면서 겪는 온갖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보면 자기를 반성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천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계에라도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영생을 바라는 염원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범부의 깨달음임을 상기한다.

②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 **좌종을 친다.**

○ 지나친 욕망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과 고뇌를 당하면서 생로병사의 현상을 보게 된다. 객지의 서러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죽음의 두려움은 권력으로 막을 수 없고 재산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남녀의 단정한 아름다움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어 안락하고 포근한 집을 떠올리고 떠난 집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무명인 불각(不覺)을 없애고자하는 시각(始覺)이 일어난다.

○ 드디어 부모가 사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지만 자기 집인 줄 모르고 지나친다. 지나가면서 집안에 있는 고귀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다. 아버지는 어릴 때 집나간 자식을 알아보지만 자식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간다. -자기의 마음 본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음의 본성인 아버지는 본각(本覺)이며 자식은 시각(始覺)이다.

◎ **좌종을 친다.**

○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어 자식을 집으로 데려오게 한다. -이제 본각의 집으로 오기 시작하는 시각의 모습이다. 이것은 범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명상을 통해 모든 것은 변하고 상호의존하며 자성이 없다는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은 고정되고 분리되어 있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이익을 추구하던 것이 생로병사 하는 세상의 꿈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명상을 통하여 몸(身-苦諦) · 느낌(受-集諦) · 마음(心-滅諦) · 현상(法-道諦)을 관찰하면 먼저 몸은 형태가 사라지므로 신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것은 환영과 같고 -몸의 껍질을 벗는다.

몸의 형태가 사라지고 느낌만 관찰되는 감각도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도 머물러 있지 않음에 머문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보이고 들리는 오감이 활동적이지 않게 되고 이때의 느낌은 꿈과 같음을 알게 된다. -감각의 껍질을 벗는다.

◎ **좌종을 친다.**

다음은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진치를 가진 마음들이(망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려 없앤다. 망념과 알아차림이 같이 사라지면 마음은 빈 항아리와 같이 되어 마음도 허공과 같음을 관찰한다. 일어나도 일어난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어 늘 자취 없음이 빈 항아리와 같이 무심상태로 들어간다. -번뇌의 껍질을 벗는다.

망념이 없어져 텅 비어 있는 현재만 경험하는데 이 텅 빔을 유지시키고 이 텅 빔에 익숙해질 때 텅 빔을 지켜보는 마음이 드러나면서 이 마음이 바로 명상의 대상이 된다. 이때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된다. -무아와 공성이 드러난다.

첫째, 한 순간의 마음이 다음 순간에 남아 있지 않아 찰나임을 경험한다. 하지만 마음의 연속성은 없어지지 않아서 불연속의 연속이라는 마음의 특성을 알게 된다. 둘째는 '나'라는 것은 마음에 의존해서 명칭이 붙여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불연속의 연속성의 마음은 유도 무도 아닌 중도이며 무자성이다. 그래서 무조작(無造作)의 본래적인 마음상태에는 탐욕 등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없다. 감정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생멸하지만 자성이 공한 마음의 본성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경험할 것이다. 넷째, 마음은 순간적이므로 생각도 일시적임을 알게 되어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다섯째, 마음의 본성은 자아가 없어 무아이며 자성이 없어 공함을 알게 된다.

◎ **좌종을 친다.**

마음의 본성이 무생무멸[空]임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지혜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수용해야하는 마음의 작용과 버려야하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서 무아와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자아와 자성이 있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꿈을 꾸다가 이것이 꿈인 줄 알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하여 자성이 공하며 평등하다는 자비의 지혜를 만나 일상생활에서는 끝없이 자비심을 베풀고 보리심을 키우게 된다. 안으로는 무분별 속에서 자아와 자성이 없다는 무아 공성의 지혜로 일행삼매가 일어나고 일행삼매 속에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게 된다. 이제 무지의 긴 꿈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 집은 본각의 집이며 자신의 내면이며 깨어있는 마음의 본성이다. 집안으로 들어옴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즉, 일행삼매(공삼매) 속에서 공성의 지혜로 아공법공, 주객평등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여 법계가 하나임을 깨닫고 법신을 성취하게 된다. 무명의 꿈으로 인하여 현실이 왜곡되어 꿈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하여 공성의 지혜로, 깨달음의 빛으로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멈추게 된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신 화 불 사

■ 전통한옥 신축, 철거, 개보수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개보수
■ 수익형 기도처 (서울시내)
년 수익 보장
▷가액 : 21억 (잔고증명 필요)
■ 요사채용 재목 (ㄱ형 한옥)
다그라스 재목. 40 ~ 45평
▷가액 : 4,500만원 (시중가 1/3)
그외 다수의 부동산 매물 있음.
■ 7층석탑 12자 500만원
7층석탑 13자 800만원
7층석탑 12자 1,000만원
7층석탑 12자 3,000만원
납 골 함 1,200기 1억 2천만원

010-6545-2020
신 화 불 사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5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에 촛불을 들고 있을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촛불을 밝히고 천도재를 하는 이유

질문 선원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새겨진 새해맞이 촛불재 안내 문구를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내 안에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맡기면 내 근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원에서는 매년 정월에 삼 일 동안 촛불재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사시에는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재를 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밝힙니다. 내 근본 하나만 붙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촛불을 밝히고 천도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초에 삼 일 동안 촛불재를 하는데, 그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아는 것이라면 아마 전자에 선조들이 그렇게 방편으로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 안 하고도 될 수 있었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염불도 있어야 했고 촛불재도 있어야 했고, 그 옛 법을 다 갖추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도 예전 법도 둘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그걸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알고 해야 합니다. 모르고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밝아져 있지 않다면 촛불 자체를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입니다. 전체 근본 자체가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까요.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이라! 그 근본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무수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 조그마한 마음의 촛불, 티끌만도 못한, 아니, 티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묘합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촛불이지만, 언제나 생활을 하든지 만남이 있든지 사랑을 하든지 회사에 나가든지 모든 것을, 먹는 거나 자는 거나 깨는 거나 또 만나는 거나, 모든 것을 자기한테로 돌릴 때 그때에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보림을 하는 겁니다. 또 만나고 난 뒤에 보림을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촛불 하나가,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이 우주를, 아니 우주 전 세계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닿기만 하면 몽탕몽탕 태워 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재를 하면서, 저녁에 예불을 모시고 촛불재를 하면 그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는 거를 아주 실감나게 실천으로 옮기면서 내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나까지도 거기 더불어 같이 태우는 법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 촛불 자체는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바로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력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촛불재를 하더라도 그 촛불 하나가 우주 대천세계를 태울 수도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고정되게 착을 두지 않으면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을 나온 그 자리에 내려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생각을 했어도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걸음을 걸었다면 뒷발자취가 없듯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직 떼 놓지 않았으니까 발자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밝힌 그 한마음 촛불 하나에 지금 현실, 이 순간 바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정진인지요

질문 정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 큰스님께서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자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제대로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반성하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공부에 관련해서 정진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냥 생활선법(生活禪法)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을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라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여건에서 세 가지 단계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에 남이 다 자고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이놈아, 네가 너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 주느냐?' 이거죠.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만이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거야.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좌선도 되지만 그게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 못했을 때 지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한해선 특히 더하고, 스님네들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빚어지는 거거든요. 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굴려서 놓아야 떨어지죠. 거기에서 예전에 살던 그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습성이 다 떨어지지 못하면 인정을 못해요. 하늘에서, 한울 중심에서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습성, 인연들과 살던 그 습성을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고 자꾸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굴려서 놓되, 그 마음이 분기해서 탁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해라 이거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둥글어지고 둘로 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선(禪)으로 고칠 수 있는지

질문 주인공에 진짜로 맡겨서 참선이 된다면 몸의 병도 고친다고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데요, 병도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경우는 작년부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으로써 고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 병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병뿐만 아니라 전체 살림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일체 만법이 다 그렇

☞ A18면으로 계속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인각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이기봉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조현성 스님	목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최원허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학 개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 (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8년 2월 8일 (목) ~ 2월 27일 (화)**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1)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바로 마음!

☞ A17면에서 계속

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는 얘깁니다. 이 원인은 지금 여러분 몸속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방편으로 따져도 1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아니라 숫자 없는 1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1억이라는 게 어디서 왔나.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인연들입니다. 악으로 했으면 악으로 지은 인연, 선으로 했으면 선으로 지은 인연들, 형제의 인연들 뭐, 모든 인연들이 착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대로 인연이 돼서 여기 여러분의 몸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엄마나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있어서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부모한테 받았는데, 그 몸속에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은 전부 자기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뭉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도 과거의 인연이 그렇게 하게 만들고, 악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선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모든 게 한군데서 그냥 바깥으로 나고 들고 나고 드는 겁니다. 체가 없으니까. 마음에 정말 입자가 돼 가지곤 그냥 분자로 화해 가지고는 자꾸 나와서 나한테 귀인이 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악인이 돼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고 또 잘돼 나가는 거는 전자에 살다가 인연을 잘 지어서 선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다면 또 그런 인연은 귀인을 만들어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병이 나게 하는 것도 공장마다 병이 나게 하는 수도 있고 간장 공장만 병나게 하는 수도 있고 방광 공장만 병나게 하는 수도 있고 그냥 전부, 대장 소장이니 식도니 뭐, 심장이니 콩팥이니…. 이런 것도 전부 공장과 같다 이겁니다, 오장육부가.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잘 내면 꿈을 잘 못 꾸고도 '아, 이거는 잘될 꿈이다.' 생각을 하면, 한생각 주인공한테 맡겨서 '아, 이거 잘되게 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을 지배하거든, 전부! 마음이 그러면 두뇌로 올라가서 두뇌로 인해서 사대에 다 통신이 되는 거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루는, 병 다루는 그 지배인이 자기지만 다루지 않게끔 말을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놈의 거를, 자기가 자기 몸 다루는 것도 자유스럽게 생각을 못해요. 자길 믿질 않아. 지금도 "놔라! 놔라!" 응? 아니 "당신은 거기에 자꾸 말리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러는데도 자기가 부드럽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길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고 부아가 치미는데 그게 화탕지옥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 화탕지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화탕지옥이에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끄달리느냐 이거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런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내 지배인의 이 마음은, 그대로 마음내기 이전은 부처지만 이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 분별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어서 분별심이 막 동할 때는 '어,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놔야 될 텐데,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꺼진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죽기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놔라! 놔라!" 해도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만약에 집안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두었다고 합시다. 여기 가게들 많이 하죠? 그러면 가게에서 심부름꾼을 두었는데 심부름을 시키려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뭐 뭐뭐 해 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만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해 올 텐데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아서 해!" 그러면 뭐를 알아서 하라는지, 심부름을 영악하게 못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운전수가 잘 끌고 다니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하는 데는 그저 무조건 자기 지배인, 즉 말하자면 주인공 그 자체를 믿고 맡겨 놓는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낼 수 있는 분별과,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서로가 독불장군이 없이 돌아가는 거.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할 수 있는 이 세상, 이런 거를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낸다. 꿈을 꿔도 꿈을 잘못 꿨다 잘 꿨다 이런 거를 논의하지 말고, 이게 잘못될까 잘될까 생각을 하면 벌써 이게 잘못되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 벌써 통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네들 속에서 나오는 거 자기네들이 해결하라고 딱 맡기면, 자기네들이 '아, 이거 맡기는 놈이나 나 지금 하는 놈이나 다 같은 나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맡기는 놈 죽인다면…. 바로 이 맡기는 놈이 바로 내 몸뚱이로구나.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분 없죠?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들 해서 몸 건강하게 고치고 자기가 자력으로서 고쳐 나가면서 가정을 튼튼하게 해 나가면서, 또는 남도 한생각을 내서 건져 줄 수도 있고, 내가 건져 줬다고 으시대는 그런 마음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보면 그것이 바로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촛불 하나가,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이 우주를, 아니 우주 전 세계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닿기만 하면
몽탕몽탕 태워 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지웠습니다

질문 제가 한 생명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생에 큰 벌을 받게 되는지요? 제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도 여러 가지죠.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길래 낙태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의 죄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의 배신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자가 배신을 했기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 돈벌이를 해 가지고 어린애를 가지자 해서 낙태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여자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남자애가 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낙태하는 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지겠지요.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우리 선원에도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태시키는 숫자를 생각해서 그만큼 정성을 들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의 그 영에다가 영을 만 개를 넣으면 몇 개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 됐소!" 했습니다.

어떤 이가 예전에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잘못돼서 크게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하고부터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럽디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70살이고 80살이고 딱 주어져서 이제 잉태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중간에서 탁 치워 버리니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70살까지 살 나이라면 70살까지 허공에서 돌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 기한까지?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가로막히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워서 지극하게 근본과 둘 아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바로 그냥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버려도 두드러지지 않죠. 빗물이 바다로 수많은 방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의 물에다가 이렇게 부은들 그냥 한 그릇이죠. 그와 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또 이 주인공에 의해서 줄을 놔서 내보낸단 말입니다, 좀 더 좋은 데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악행스럽게,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가정에 다시금 태어나지 말라 하고 지극하게 염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예요.

나는 어떡하든지 여러분이 편리하고 마음을 훌훌 털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자꾸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안된다, 뭐 죄가 있어서, 너는 무슨 업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불바퀴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으면 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력이라는 것은 자석이 큰 덩어리가 있으면 조그만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큰 데 갖다 붙으면 그냥 하나로 돼 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급박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완화될 수도 있고 다복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극치적으로 그냥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자유스러운데 왜 자유스럽게들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나는 이제 큰 벌을 받는다고 마음을 옭아매어 놓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내 안의 근본에 둘 아니게 하나로 결부를 시켜 버리고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모든 것을 둘 아니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도 없는데 내 행동만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조각 진실한 마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면 그 생명도 당신과 둘 아니게 차원이 높아져서 더 좋은 곳에 임할 테니까요.

소와 달구지와 마부에 대해서

질문 『한마음 요전』에 보면 삼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와 달구지, 마부, 즉 달구지를 탄 사람'의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합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로 묶어 보아야 옳은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는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죽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부는 마음이요, 바로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자기의 주인공, 바로 자기 조상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바로 소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는 그 소를 쳐야지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다가 모든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바로 지금 마음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같이 동일하게 지금 움죽거리고 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나'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써 그냥 무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냐,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냐 이런 게 있죠. 마부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바깥으로 빌어야겠습니까? '네 뿌리가 네 나무를 돕지 어느 누구가 돕겠느냐.' 하고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거는 남의 뿌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 현불 논단 |

외로움 관리는 부처님처럼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美서 외로움 대상 돈벌이 성행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한 英
이젠 외로움마저 관리하는 시대

현대의 외로움, 개인 · 구조서 기인
상호 관계하며 생존 문제로 확대

붓다는 위대한 외로움의 관리자
우린 많은 존재 도움으로 살아가
함께 하는 '공업중생' 임을 알아야

참으로 요상한 세상이다. '외로움'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직업이 미국에는 성행한다고 한다. 시간당 30달러를 내면 식사와 쇼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대여 서비스업'과 시간당 80달러로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는 '커들리스트(Cuddlist)'라는 회사가 성업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그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긴 사유의 역사 속에서 '외로움'은 항상 고귀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외로움은 인문학의 원천이고 한 밤의 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인가?

지난 1월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으로 임명하였다. 그 장관은 외로움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람을 연결하는'이라는 용어가 깊게 다가온다.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 간의 연결이 단절에 있다는 것이리라.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꼽히는 부탄은 행복성이라는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을 사람 간의 바르고 따뜻한 관계의 유지에 두고 있다. 외로움 담당 장관과 행복성 장관의 역할이 동일하게 보인다.

외로움에 대한 담론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외로움에 대한 철학적 사변은 사치가 되어 버렸다. 외로움은 실존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전락되어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거론되는 외로움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번거로움과 불편을 회피하고 반려 동물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무생물들을 동행자로 삼는 경우가 개인적 측면의 외로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혼밥족'이라 불리는 대상이 이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성 붕괴, 가족 관계의 해체, 고령화 사회 등의 원인에서 나온 외로움은 사회구조적 측면이다. 노약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의 외로움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은 서로 배타적인 것인 아니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붓다는 위대한 외로움의 관리사다. 웬 외로움의 관리사? 붓다는 외로움 때문에 출가하였다. 인간 삶이 지닌 생로병사를 보고 깊은 존재의 외로움을 느꼈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치열한 수행을 하였고, 드디어 깨달음을 통해 외로움을 넘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핵심은 '함께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개체는 공동체다. 또한 모든 공동체는 개체이다. 따라서 연기법을 증득하면 외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외로운가? 연기법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존재의 도움을 얻어 살아간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날 때 붓다의 '자비 사상'이 나온다. 자비란 'maitri'와 'karuna'를 번역한 것으로 어원상으로 풀면 '우정'과 '공감'으로 볼 수 있다.

외로움에 빠져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최대의 치유는 바로 우정과 공감이다. 연기법을 일상 삶의 틀에서 체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 자비수행이 중요성이 있다. 자비수행을 통해 연기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수행은 자비실천이다. 오늘날 자비 실천의 과제는 타인에 대한 우정과 공감을 사회구조와 제도에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있다. 현대사회의 외로움 극복은 단순한 개인의 선업(善業)의 차원을 넘어 사회가 함께 하는 공업(共業)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찌하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불교 아이돌봄이 단체, 왜 없을까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문 반짝(가명)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다. 아직 어린 딸을 초면의 아이돌봄이와 단 둘이 남겨두고 회사로 출근하려니 걱정이 앞선다. 가정용 CCTV를 설치할까, 멀리 계신 시부모님을 오시라 할까, 회사에 나와도 머릿 속에는 아이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2016년 11월 기준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144만쌍 중 맞벌이 부부는 52만여 쌍으로 전체의 44.5%였다. 2015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어린 아이가 있다면 육아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부부가 직장에 출근하면 아이를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혹은 늦은 저녁까지 하는 어린이집은 드물다. 매일 다른 사원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직장은 더더욱 드물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가정양육이 49.9%로 가장 많다. 시부모, 친부모들의 황혼육아와 외부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이를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봄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 중계 사이트도 있지만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기독교계인 YWCA다.

YWCA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동화구연, 베이비마사지, 목욕법 등 교육 진행해 아이돌봄이로 파견하고 관리한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다. 기왕이면 믿을 만한 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은 것이다. 같은 금액이어도 '종교계라 낫겠지' 하는 이미지에 문제 발생시 책임까지 지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봄이로 성과를 본 YWCA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양성까지 나섰다.

그렇다면 YWCA와 같은 불교계 사회봉사 · 서비스 조직은 없을까. 애석하게도 없다. 2011년 불교여성개발원이 YWCA를 벤치마킹해 여성불자들의 사회기여를 높이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108인회 차원에서 진행돼 확산되지 못했지만 꾸준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부터 불자 요양보호사를 교육, 양성해 불자 가정의 어르신들을 불자들이 보살피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환영할 일이다.

최근 사찰들은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세워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가 가진 인적 자원, 즉, 신도를 교육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사찰이나 불교계 기관이 수많은 여성불자들을 교육하고 중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유아 포교도 되지 않을까. 또 40~60대 여성불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효과도 얻지 않을까.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공동체였다. 개인의 기도와 수행에서 불교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진정한 불교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社說

진정한 평화올림픽 위해서는…

30년 만의 대축제, 평창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스포츠 4대 이벤트로 꼽히는 여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대회, 겨울 올림픽을 개최한 6번째 국가가 된다.

한때 전쟁 직전까지 갔던 국가 위기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로 인해 평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평창대회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정치가 바뀌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탁구를 통한 '핑퐁외교', 남북 축구 단일팀 구성을 통한 대화 재개 등이다.

특히 올림픽은 평화 정신 함양을 기치로 한다. 고대 올림픽이 탄생한 것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경쟁도 있지만 이 기간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였다. 평창올림픽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대화를 통해 향후 동북아 평화 정착의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불교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이듯 종교와 정치도 별개다. 하지만 종교계의 움직임을 통해 정치가 바뀌기도 한다. 임진왜란 후 사명대사의 활약이나, 당나라 유학승들의 활약이 그것이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은 한국사회 갈등해소의 단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남 및 남북갈등 해소에는 불교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새겨지고, 올림픽 이후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어지기까지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

밀양 · 제천 참사, 아픔을 나누자

지난 한 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사고 직후인 지난 1월 29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방문,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설정 스님은 세종병원서 사고를 당한 故 김삼석 할머니의 빈소를 찾았고, 유가족과 아픔을 나눴다. 또한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키도 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관음종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도 밀양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밀양 지역 불교계 역시 참사 극복을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고 한다. 밀양 지역 사찰들은 화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현수막을 걸고 추모 기도를 입재했다. 참사 49일인 오는 3월 15일까지 기도를 진행하며, 합동위령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도 불교계의 추모 행렬은 이어졌다.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비의 발로였다. 옛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가족을, 친구를 갑자기 잃은 아픔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온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바로 규명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소방 안전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물 책임자에 대한 필벌(必罰)도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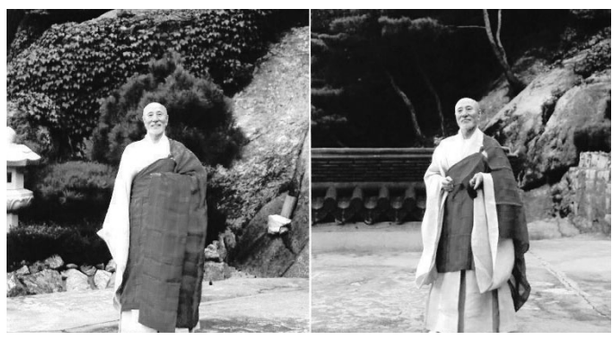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는 화재사고로만 너무 많은 인명을 잃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도 울려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시다림 염불공양, 보살 닮아가는 길

道伴의 향기 BTN불교TV 염불공양회

육법공양 · 시다림 봉사 신행
부산 지역 육법공양 도맡아
1994년 염불공양회 창립
시다림 염불공양 봉사 전법
오직 '무주상보시'가 철칙
年 200회, 시다림 염불공양
요청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재난 현장도 방문 위로, 봉사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부처님 당시 왕사성 옆엔 '시타림'이라는, 일종의 노천 공동묘지가 있었다. 수행자들은 더럽고 악취로 가득한 이곳에서 고행하며 수행했다. 망자를 위한 설법, '시다림'은 그 시타림에서 온 말이다. 결국 시다림은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생사의 법을 묻는다. 1년에 200여 회 시다림 봉사를 하며 불법의 요체인 생사의 의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들이 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BTN불교TV 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 이하 염불공양회)'다.

지장보살을 서원하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BTN불교TV 염불공양회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팔관회 그리고 사명대사 추모대재 등 크고 작은 법회와 행사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을 도맡아 해왔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봉행된 봉축대법회에서 육법공양을 올린 후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그렇게 공덕짓기를 이어온 염불공양회의 진면목은 육법공양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을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시다림 염불봉사다.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 장례식장을 찾는 일은 그들에게 보통 일이다. '시다림' 염불 봉사를 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1월 29일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만난 하정선 회장은 창립할 때부터 포기하지 않는 철칙이 있다고 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마음에 걸림도 없고 머무름이 없는 보시로 극락을 기원하는 염불공양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을 닮았다.

"사랑하는 이를 마지막으로 보낼 때 해주지 못한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아쉬움과 후회가 사무쳐 가슴이 아픈데도 마지막에 극락왕생을 기원할 시다림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탁할 수가 없는 거죠."

염불봉사회가 지금까지 해온 봉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는 하 회장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도하기 위해 찾아 갑니다. 오직 그 의지뿐입니다"며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염불공양회의 봉사는 그야말로 무주상보시이며, 누구라도 부담 없이 염불공양회를 불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널리 알려달라는 것이다.

염불일념, 극락정토 열어

염불공양회는 1994년 3월 10일에 창립됐다. 하 회장은 창립 전부터 불자 10여 명을 모아 염불공양을 위한 보살계를 운영했다. 주변 모든 이들이 어려운 일이라며 만류했으나 하 회장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환희심에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렸다. 반대에 부딪쳐도 염불공양만 생각하면 그 의지는 더욱 더 강해졌다. 그는 40대 때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정토를 꿈꾸기 시작했다.

"주변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가서 닦아주고 기도도 해주는 타종교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 중에는 불법에 귀의했다고 하면서도 미신에 현혹되어 초상집을 찾지 않는 불자들을 더러 봅니다. 답답한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는 하나라 하셨으며 죽음을 맞는 이의 청법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 회장이 염불공양 봉사를 시작했을 때 방해가 됐던 것은 바로 사견(邪見)이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집안에 경조사가 다가올 때, 초상집에 가면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자들을 종종 본다고 했다. 그 때마다 하 회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히 보라"고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는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따르고 지켜서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가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자세히 보라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정법을 전한다는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 회장은 보살계 활동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 회장은 염불공양 봉사를 널리 알릴 기회를 잡게 된다. 하 회장의 남편인 우판수씨가 BTN불교TV 부산지사 초대 지사장을 맡게 된 것이다. 하 회장은 남편을 염불공양 봉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식으로 염불공양회를 창립했고 발대식까지 열며 염불공양회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염불공양회가 점점 더 알려지게 됐고, 염불공양회는 부르는 곳이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갔다. 20년 전에는 장례 문화도 지금 같지 않아 집에 시신을 둔 채 염불공양회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한 여름에 회원들이 부산 산복도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상주는 다락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회원들이 모여 앉기조차 힘든 곳에는 시신이 있었고 덮을 것이 부족해 시신을 다 덮지 못했다. 덮어주지 못한 시신의 다리를 보며 그들은 한 시간 동안 염불을 했다. 시신이 바람을 맞으면 붓기 때문에 선풍기조차 켤 수 없었던 그들은 땀으로 흠뻑 젖어야 했다. 하지만 염불공양회는 출상 때나 임종 때나 시다림을 듣고자 하는 인연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갔다. 염불공양회는 1년에 200여 회 시다림 봉사를 한다. 병과 사고로 인한 개인적인 임종은 물론 재난으로 인한 참사 현장에도 찾아간다.

염불공양회는 2006년 7월에 강원도도 방문했다. 당시 강원도 전역에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주택 781채가 침수 됐고 1천 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마실 물조차 없어 수재민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겨우 연명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재민들은 배탈과 설사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어야 했다. 사망자만 23명이었고, 찾지 못한 시신도 많았다.

염불공양회는 수재가 발생한 3일 후 강원도 인제군을 바로 방문했다. 재해로 인해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천수경〉과 〈금강경〉을 독송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지루가참과 대승삼매선법

B5
문화
김양수 '섬진강 꽃잎편지-달밤에~' 展

B6
학술 · 문화재
경주 낭산서 신라 왕실사찰 존재 확인

BTN불교TV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염불공양 봉사를 위해 1994년 3월 10일에 창립 됐으며, 1년에 200여 회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비롯해 팔관회 등 부산에서 열리는 중요 행사에서 육법공양을 담당하며 장학금 전달 및 병원 법보시 후원 등 다채로운 봉사로 전법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2009년에 제21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으며 부산시장상 및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2016년 사명대사 추모재에서 육법공양하는 염불공양회



2016년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 참여한 염불공양회



시다림 염불봉사 중인 염불공양회 회원들

“오직 영가 왕생을”… 염불행자의 간절한 서원

‘염불공양회’ B1면에서 계속

봉사공덕 부처님 가피로 돌아와

50여 명 주부회원, 스스로 가입

장학금 19년 동안 2억여 원 전달

20여 년 병원 경전 보시

폐 수술 미뤄가며 봉사활동

수술 미룬 것이 복으로 돌아와

“염불공양 등 봉사단체 많아지길”



염불공양회 하정선 회장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이재민에게는 위로금과 이불 그리고 옷 등을 전달했고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에게는 특별 성금도 전했다.

염불공양회 회원들은 2002년 태풍 매미가 부산을 강타했을 때에도 가덕도를 찾는 등 재난 현장을 찾았다. 모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재난 현장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기도하고 도배, 쌀 전달, 학교 축구공 기증 등의 봉사도 진행했다. 회원들은 슬픔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법을 많이 알게 된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를 설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보며 새 삶을 찾게 됩니다. 무엇이 고통이며 무엇이 기쁨입니까? 생과 사가 하나입니다. 극심한 상실의 고통 속에 부처님의 법으로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봉사는 작은 정성으로…정성 모여 큰 회향

염불공양회 회원들은 모두 주부 불자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후원 회원 150여 명이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 모두 봉사가 좋아서 스스로 찾아 온 이들이다. 염불공양회 사무실을 방문하자 5~6명의 회원들이 우편발송 봉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후원 회원에게 보내는 우편물 발송 준비로 손놀림이 분주했다. 갑자기 우편 봉사 중에 하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회원들이 회비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보시 한 것이 화근이다. 하 회장의 “왜 보시를 더 했느냐”는 질문에 회원들은 묵묵부답이다. 하 회장은 “남편들이 열심히 노력해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써야 한다”며 “봉사하는 회원들의 기본 회비만으로도 괜찮다.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말하고 다독거렸다. 가난해도 꾸준하게 염불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염불공양회는 가난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말은 ‘가난’이라고 했지만 회장과 회원들은 23년 간 작은 정성이 모여 큰일을 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염불공양회는 매년 대학생 5명에게 100만 원, 고등학생 10명에게 50만 원 등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번 2월에도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를 포함해 19년 동안 총 2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대학병원에는 20여 년 동안 경전을 보시하고 있다.

회원들은 처음 봉사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반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강행순(57) 회원은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자리도 원했다.

“10년 전 처음 가입 했어요. 평소 사찰을 다니며 공부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한 자신을 봐야 했고, 그런 자신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언니로부터 전해들은 염불봉사회는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너무 큰 활동처럼 느껴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염불봉사회는 회원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함께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는다고 했다. 염불공양회 활동 원칙 중에 제일이 ‘가정 우선’이다. 봉사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을 소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 중에도 하 회장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협조해주고 이해해주는 회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한다”고 했다.

강지원(60) 회원은 “새벽에 출상을 하는 날에는 세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출근길에 태워주며 응원해 준다”며 “봉사활동은 가족의 이해와 응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 가운데 사경과 경전 독송 수행으로 더욱 깊어지는 자신을 보는 건 기본이다. 회원들은 〈금강경〉을 사경하고 읽으며 매일 천 원씩 저금통에 넣는다. 그렇게 모은 돈은 장학금으로 쓰고, 사경은 염불공양 할 때 영가를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모두 봉사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봉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봉사의 보람으로 인해 또 한 번 행복해진다고 했다.

최말순(58) 회원은 “시다림 염불봉사에서 매번 죽음을 마주해서인지 욕심이 없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살아갈 수 있어 다툼이 없다”고 했다.

양명숙(61) 회원은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염불공양회가 왔었다”며 “큰일을 치르고 나니 얼마나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하 회장은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하 회장은 폐에 천공이 있었다. 수술이 급했다. 하지만 육법공양과 염불공양회 일로 하루하루가 바빴던 하 회장은 수술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런데 오히려 수술을 미뤘던 것이 잘 된 일이 되었다.

“10년 전부터 각혈이 멈추더군요. 근래 병원을 다시 가보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 때 수술을 안 하고 견딘 것이 오히려 잘됐다고요. 만일 폐를 절단 했다면 지금은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요”

하 회장은 부처님 가피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봉사활동을 통해 깊이 알게 됐다.

아미타부처님의 서원 닮아

법장비구는 “만약 제가 부처가 되어서도 그 땅에 지옥, 아귀, 축생이 있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고 서원했다.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 가운데 첫 번째인 무삼악취원(無三惡趣願)이다. 법장비구는 법장보살이라고도 불리며 대승의 여러 부처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미타불의 본생이다.

하 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러자 하 회장은 염불공양회 창립 때 만들었던 발원문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답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늘진 곳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밝히고, 일심으로 염불해 대중을 극락정토로 이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와 같은 단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락을 안내하는 염불행자의 서원이다. 아미타부처님의 자비를 닮은 대서원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하 회장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극락정토’는 멀지 않은 일일 것이다.



염불로 삼매… '염불선' 등장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③ 지루가참과 대승삼매선법(염불선)

(염불삼매는 대소승 모두 수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행법이다)

염불선은 염불로서 삼매(三昧 · 선정)를 수행하는 초기 선법 가운데 하나이다. 후한 말엽 월지국 사문 지루가참이 번역한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은 '불립삼매(佛立三昧)'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반주삼매의 염불선법을 수행하면 능히 시방제불이 면전에 나타나고, 깊은 삼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앉지도 눕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7일 내지 90일 동안 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하면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한말위초(漢末魏初) 중국에 불교가 점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안세고(安世高)계통은 소승선법을, 지루가참(支婁(屢)迦讖)은 대승불교 반야계통을 번역하였다. 지루가참은 안세고보다 조금 늦게 중국에 왔다. 그는 반야 계통의 대승경전류인 〈도행반야바라밀경(道行般若波羅蜜經)〉을 역출했고, 이 외도 〈반주삼매경〉 및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을 번역하였다. 이 가운데서 〈반주삼매경〉은 현존하지만, 〈수능엄삼매경〉은 이미 유실됐다. 다만 현존하는 〈수능엄삼매경〉은 구마라즙이 번역한 이본이다. 위의 세 가지 경전은 모두 대승반야 연기성공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대승삼매선법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반야계통의 경전을 번역함과 동시에 또한 대승선법을 소개하기도 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오랫동안 중국에 영향을 준 것은 '반주삼매(般舟三昧)'와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이다. 이 선법은 안세고 계통에서 선양한 선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선법이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대승선의 내용 중에는 소승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소승불교보다 더욱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루가참이 번역한 〈반야도행경〉, 〈반주삼매경〉, 〈수능엄삼매경〉 등은 대승경전에 속하는 경전들로서, 공성이론과 삼매 실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대승삼매선법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하며 중대한 작용을 했다. 반야공의 뜻과 위진 시대의 현학 간에 유사점이 존재했던 관계로 당시의 서역승들이 부단히 중국에 와서 불교전파 및 불교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즉 지겸, 구마라즙 등이 중국에 이르러서 다량의 대승경전을 역출하면서부터 대승삼매선법이 또한 중국 전역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른바 삼매는 '선정(禪定)'의 이명이다. 〈대지도론〉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선정을, 또한 정(定)이라고 하고, 또한 삼매라고 한다."라고 했다. '반주삼매'는 의역하면 '불전현정(佛現前定)'이라고 한다. 즉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염불을 하면 부처님께서 염불하는 자의 전면에 출현한다는 것으로, 일종 선정 상태를 말한다. 〈반주삼매경〉을 보면 "오직 한곳에서, 지금 바로 서방아미타불을 염하면, 들은 바 당념(當念 · 바로 당하에 염하다)을 따라서 이천만억불찰에 갈수 있으며, 그 나라의 이름이 수마제(須摩提 · 극락세계의 이명)이다." 또 "일심으로 이를 염하되, 일일일야(一日一夜), 혹은 칠일칠야(七日七夜), 칠일(七日)일 경과한 후에 이것을 본다(나타난다)"고 했다. 여기서 '이것을 본다'라는 것은 곧 극락세계 및 아미타불을 말한다. 즉 앞에서 말한 '불현정정(佛現前定)'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반주삼매경〉의 기본사상은 연기성공(緣起性空)이기 때문에 제불현전은 실유(實有)가 아니라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수능엄삼매경〉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체제법은 모두 공해서 환과 같다. 화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며, 짓는 자도 없고, 모두 기억 속의 분별로 일으키는 것이며, 주재하는 자도 없고, 뜻에 따라 나타난다"고 했다. 즉 성공환유(性空幻有)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능엄삼매'를 의역하면 '건행정(健行定)', '건상정(健相定)' 혹은 '일체사경정(一切事竟定)'이다. 이러한 선정은 다만 더욱더 빠르게 성불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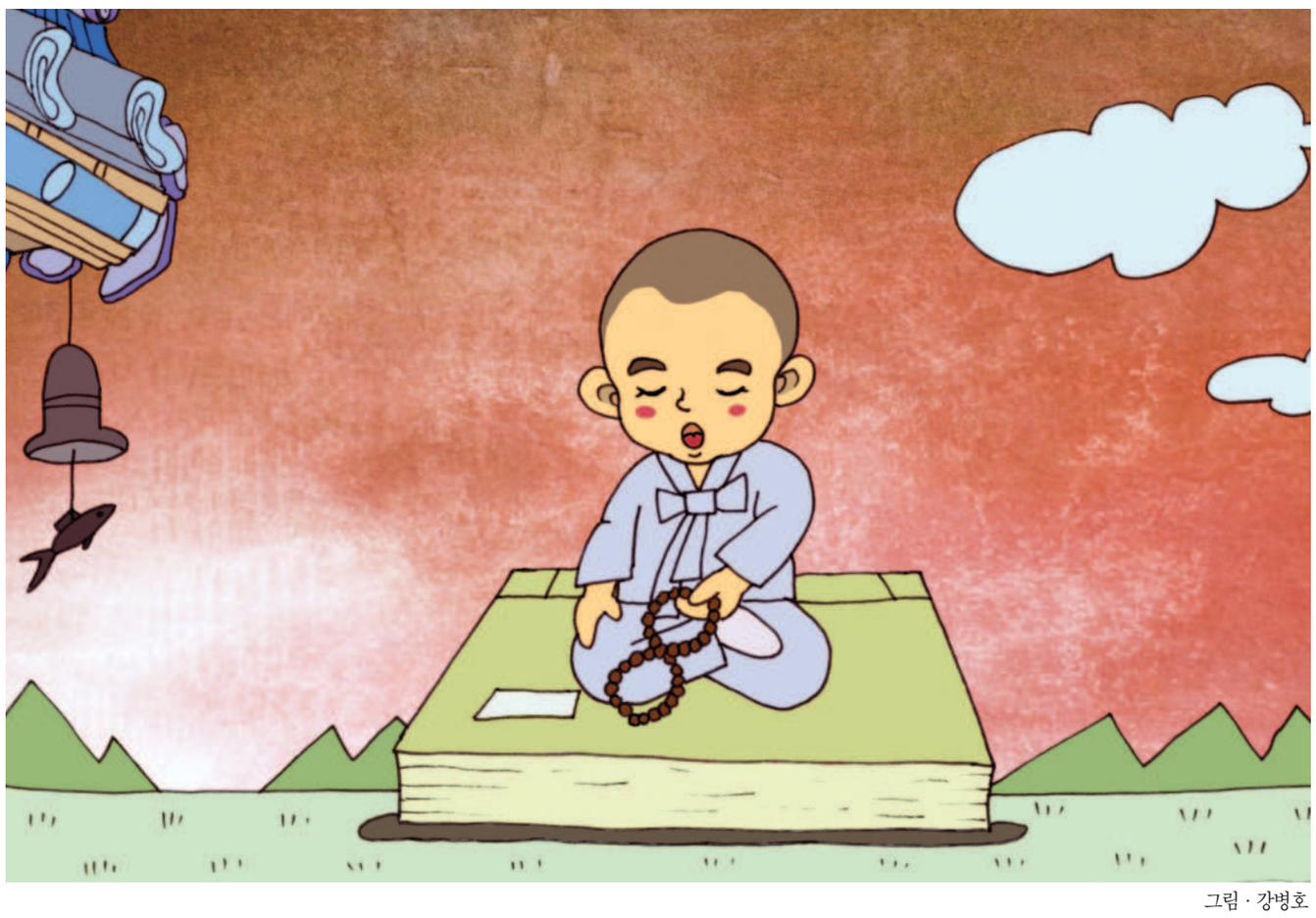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염불로 삼매수행하는 '염불선'
지루가참, 대승경전류 번역
〈반주삼매경〉 〈수능엄삼매경〉 등
염불선 정착 촉진제 기여

〈반주삼매경〉은 연기성공사상
삼매제불현공은 실유(實有) 아님

"일심염불하면 불국토에 왕생"
혜원, 정토염불 수행법 창시

대승삼매에서 하는 염불은 석가모니부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방제불은 모두 대승염불삼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만 모든 경전에서 많이 설하는 것은 역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 대승삼매는 또 세 가지의 삼매로 나누어지는데, 곧 실상염불(實相念佛), 유심염불(唯心念佛)과 타력염불(他力念佛) 등이다. 이 세 가지는 후래의 각종 대승삼매의 염불법문이 되기 때문에 각각 편중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미타경〉 〈기신론〉 등은 '타력염불'을 주장하는데, 즉 일심으로 염불함으로 인해서 타방정토인 불국토에 왕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에서 설하기를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데 혹은 일일 혹은 이일…, 내지 칠일을 하되,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임종을 할 때, 아미타불 및 모든 불보살들이 그 앞에 나타난다. 또 사람이 임종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며, 곧 아미타불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했다.

〈기신론〉에서도 "오직 염불한 인연으로서, 원하는 바를 따라서 서방불토에 나며,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고…, 만약에 사람이 오로지 서방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염하면…, 곧 왕생을 얻으며, 항상 부처님이 나타나는 고로 마침내 퇴전이 없다. 만약에 저 진여법신을 관하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면 마침내 왕생을 하고, 바른 삼매에 주한다"고도 했다. 〈화엄경〉과 〈반주삼매경〉에서는 '유심염불'을 주장했다.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안락세계 아미타불을 친견하고자 한다면, 그 뜻에 따라 나타난다…, 일체제불과 나의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알고, 일체불이 마치 영상과 같고, 자심이 물과 같음을 알고, 일체불소에 있는 색상(色相) 내지 자심이 모두 다 환과 같음을 알고, 일체불과 자기의 마음이 모두 메아리와 같음을 알아서,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제불은 모두 자심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했다. 〈반주삼매경〉에서도 "자념불은 온 곳이 없으며, 나도 또한 이르는 곳도 없다. 자염욕처(自念欲處), 색처(色處), 무색처(無色處) 등 이 삼처는 모두 뜻(意)의 작용일 일 뿐이다. 내가 염한 것이 곧 나타난다. 마음으로 불(佛)을 지으면 마음에 스스로 나타난다. 심은 불심(佛心)이며, 불심은 아신(我身)이다"고 했다. 〈반야경〉 계통에서는 '실상염불'을 주장한다.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분별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곧 제법실상으로서 여래를 관한다"고 했다.

중국에서 최초로 타력염불을 제창한 인물은 동진 시기의 혜원(慧遠) 선사(334-416)이다. 그는 일찍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염불결사를 하기도 했다. 〈염불삼매보왕론(念佛三昧寶王論)〉에서 보면 "모든 삼매는 그 이름이 매우 많다. 공은 높지만 들어가기 쉬운데, 염불이 우선이 된다"고 했다. 당시 고승 도안의 명성은 매우 높았다. 혜원선사는 도안에게 귀의하였다. 그는 도안을 참배하고 나서 도안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스승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도안이 〈반야경〉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활연개오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유교, 도교, 법가, 묵가, 명(名), 잡(雜), 농(農), 종횡(縱橫), 음양(陰陽)등 구류(九流)의 학문이 있지만, 모두 쌀겨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 후 혜원은 도안을 따라서 경전을 배우고 수행을 하면서, 정토염불 수행법을 창시하는 중국불교사에서 업적을 남겼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외도 혜원은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및 역사적으로 유명한 백련사 염불결사 등을 했다.

선종에서, 선정에 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기 위해서 최상 근기와 상근기 내지 하근기를 말하는데, 이것 역시 선정에 드는 것도,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 관점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한편 중국 선종에서 근기법을 선종의 우위를 나타내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 동시에 선종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타 종파 내지 선법을 하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염불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듯이, 선종의 조사선에서 주장하는 돈오법을 증득하기도 또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염불삼매를 논해 본다면, 염불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염불선 수행은 마치 근기가 하열한 사람만이 행하는 수행법인양 인식되고 있지만(물론 지금은 약간의 관점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선정에 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선종의 수행법이나 염불수행법 모두가 그리 녹녹한 수행법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때문에 다만 목적지는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 수단 등에 대한 차이점은 인정되지만, 삼매를 닦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때문에 염불선이 하근기가 하는 수행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편견이라고 사료된다.

〈동국대 강사〉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법화 곳집, 화엄 열쇠’ … 능엄경 了義 드러낸 주석서

〈요의〉



능엄경정맥소

교광진감 지음
진명 스님 역
불광 펴냄
4권 세트 20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방 수좌로서 오로지 화두참구에 매진하던 진명 스님이 10년에 걸쳐 〈대불정수능엄경정맥소〉(이하 정맥소)를 국내 최초로 완역했다. 스님이 처음 〈정맥소〉를 접하게 된 것은 2009년 망월사 선원에서 안거할 때였다. 방선 중에 각성 스님이 강설한 〈능엄경 정해〉를 가까이했다. 그때 〈능엄경〉을 풀이한 여러 소(疏) 중에 〈정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겨울 안거를 마치고 부산 화엄사를 방문해 각성 스님에게서 〈정맥소〉 한 질을 얻었다.

다음 철 ‘개심사 선원’에 방부를 드리고 상하권으로 된 〈정맥소〉 원본과 자전 그리고 허사사전을 들고 입방했다. 방선 때마다 〈정맥소〉를 펼쳐 보았는데, 한문의 울타리에 갇힌 내용이 하나둘 드러나자 환희심이 솟구쳤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과 선후배스님 그리고 불자 대중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여 번역을 시작했다.

그동안 안거 정진 중에 봐둔 여러 경론과 조사어록이 바탕이 되었다.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간난신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정맥소〉야말로 수행자의 본분사와 믿음을 돈발하는 특별한 경전이기에 험난하다는 생각도 게으름을 부릴 겨를도 없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 뒤 제방선원에 방부를 드릴 때마다 원고를 지고 다니며, 글 밝은 스님을 만나면 해결하지 못한 곳에 대해 서슴지 않고 물었다. 그렇게 여러 스님의 도움과 그 후의 윤문작업을 더해 총 10여 년의 세월이 걸려 〈정맥소〉를 완역하고 출간하게 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문의 난해한 대목은 도표로 정리하고 나름대로 역자 주를 붙여 설명했다. 〈능엄경〉은 수행자의 필독서로서 수행에 바탕이 되는 대승교학을 아우르는 경이다.

‘법화의 곳집이요, 화엄의 열쇠’로서 수행 체계와 방편을 자세히 설하고 있어 예로부터 모든 수행자가 이 경을 중시했다. 〈정맥소〉는 이러한 〈능엄경〉을 철저히 분석해 요의(了義)를 다 드러낸 훌륭한 주석서이다. 대승교학을 밝게 천명해 선(禪)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학적 · 철학적 관점을 제공해준다.

〈정맥소〉는 일찍이 여러 큰스님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니, 운허 스님은 〈능엄경강화〉서 크게 활용했고, 각성 스님은 〈능엄경정해〉에서 이를 바탕으로 강설했다. 〈정맥소〉는 탄허 스님의 〈능엄경〉 번역에 일부 풀이가 있고, 각성 스님은 현시만 옮겼고, 현진 스님에 의해 그 일부가 번역되었을 뿐 전체가 완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큰스님들께서 입을 모아 〈정맥소〉야말로 〈능엄경〉의 심오한 이치를 잘 천명했다고 말은 했으나 불행히도 전모를 다 살펴볼 수 없었다. 교학적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선수행과 체득(體得) 없이는 문장을 올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글세대인 우리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때때로 아란야에 깃드는 것을 출가의 본분으로 삼던 선객 진명 스님이 〈정맥소〉를 완역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어째서 화두선을 최상승선이라 이름하는가? 많은 불교 수행체계 중에서 왜 화두선만을 고집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한국불교 선수행자라면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는 곧 자기 수행체계를 흔드는 역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화두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십수년을 참구한 이도 다른 방편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절집안의 실정이다.

〈능엄경〉, 부처 되기 위한 수행법 설해

〈정맥소〉는 〈능엄경〉 완벽 이해의 필수

이는 실로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방의 스님들도 걱정 끝에 이런저런 대안을 모색했던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승요의를 바탕으로 한 교학적 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맥소〉 완역은 화두참구의 교학적 · 철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한국 불교의 수행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뿌리가 되어준다.

〈능엄경〉의 정식 명칭은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이며, 줄여서 ‘(수)능엄경’ 또는 ‘대불정수능엄경’이라고 부른다. 경(經)을 포함한 20자를 간단히 풀이하면, ‘더없이 훌륭한 여래의 비밀방편으로 닦고 증득하는 가지가지 만행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모습인 여래장 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곧 首楞嚴)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는 가르침(經)’이라는 뜻이다. 즉, ‘무한히 큰 절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닦는 보살들의 완전무결하고 견고한 육도만행 수행법을 설한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능엄경〉은 신라 말기에 선법이 전래되면서 당에서 돌아온 유학승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라 추측된다. 불교의 철리와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전이므로 선가에서뿐만 아니라 교가에서도 매우 중요시했으며, 한국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다. 이 경은 〈원각경〉 〈금강경〉 〈기신론〉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4교과로 쓰이며, 대교과를 마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경전이다. 〈능엄경〉은 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수행지침서로서 고래로 선문서 즐겨 애독됐고, 특히 선수행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 수행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전으로 손꼽힌다.

이 경은 8세기 초 한문으로 번역된 이래 가장 많은 주석이 나온 경전일 것이다. 그러나 진감 스님은 그 미진함을 통탄하고 새로운 소(疏)를 쓰고자 발심해 출가했다. 스님은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된 주석서인 〈십가회해(十家會解)〉(일명 舊解)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주석을 펴냈는데, 이것이 바로 〈정맥소〉이다. 진감 선사는 〈정맥소〉를 통해 유식과 중관, 여래장 사상 등 대승(大乘)의 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문의 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관점을 세웠다. 진감 스님은 출가한 후 20여 년 동안 오로지 〈능엄경〉의 주석을 내는 일에만 매진해 이 소 하나만을 저술로 남겼다. 다른 주석가들이 여러 교학의 틀로 〈능엄경〉을 해석했다면, 진감 스님은 오로지 경의 맥락에 의지해 해석했고, 이런 이유로 소의 이름을 ‘정맥(正脈)’이라 하였다.

부처님 말씀으로 본 자녀 교육의 새로운 정의



부처님의 사랑법

황옥자 지음/모과나무 펴냄/1만 5천원

자녀 교육을 매뉴얼 따라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아이에게나 통하는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처님의 사랑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올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 대신 지혜와 자비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을 찾아간다.

아동교육학자 황옥자 교수는 〈부처님의 사랑법〉에서 총 10장의 주제를 선정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발달심리학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부모 자녀 관계, 친구, 인지, 정서, 인성, 사회성 등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아이와 부딪치는 실제 사례를 경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야기라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다. 부모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폭발적으로 접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느 것이 내 아이에게 맞을지 찾는다는 건 쉽지만은 않다. 대체로 젊은 부모들이 이론으로는 책을 써도 될 정도이지만 막상 생활에서 아이들과 부딪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자녀 교육을 매뉴얼 따라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아이에게나 통하는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처님의 사랑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올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 대신 지혜와 자비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을 찾아간다.

자기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행동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양육 태도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단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습관처럼 형성된 행동 패턴일 뿐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신의 패턴에 집착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양육 방식이 그 어느 방법보다 낫고 뛰어나고 옳다고 믿는다.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에 스스로 깊게 빠져든다. 문제는 습관처럼 사용하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잘한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자신이 왜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태도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이 부모가 당면하는 맹점이다.

부모라는 새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아이는 부모 부속물 아닌 존중 받을 존재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뭔지 모르게 아련히 밀려오는 불안을 느낀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안정된 부모 역할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너무 빠르고 요구도 다양하여 이를 잘 감당해내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보다는 오히려 어린 자녀가 상처를 입기 쉽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비해 요즈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중독에 쉽게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성장하듯이 부모도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배우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동교육학자 황옥자 교수는 〈부처님의 사랑법〉에서 총 10장의 주제를 선정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발달심리학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부모 자녀 관계, 친구, 인지, 정서, 인성, 사회성 등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 해도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아이와 부딪치는 실제 사례를 경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야기라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고, 진리란 세상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처님이라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실까’ 황옥자 교수는 아동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는 자세로 부처님의 말, 행동, 생각을 닮으려고 노력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이란 인간에 대해 새로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결과를 보상 받으려 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자녀 교육이란 아이를 통해서 부모 역시 성장하는 시간인 것이다. 부모 역할의 한계를 잘 알면서 자비와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인간으로 변신하는 멋진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전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황옥자**는?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학과 명예교수이다. 한국STEP부모교육센터 소장, 명상 상담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2006년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선정한 ‘제2차 여성 불자 108인’에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불교아동교육론〉 〈부모와 함께하는 내 아이 마음 키우기〉 〈유아 교사와 부모를 위한 동요와 손 유희〉 등이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영유아의 부모STEP〉(공역), 〈아동의 부모STEP〉(공역), 〈청소년의 부모STEP〉(공역),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능검사와 훈련〉(공역)이 있고 그 외 논문이 다수 있다.



사천왕 대형 난로

(고압노즐 회전분식형 소각 기능)

소형난로	폭 600mm × 길이 1,000mm × 높이 1,500mm × 두께 9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700~800℃
중형난로	폭 800mm × 길이 1,300mm × 높이 1,6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600~700℃
대형난로	폭 1,000mm × 길이 2,000mm × 높이 2,1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500 ~ 600℃
공양초집	폭 800mm × 길이 1,600mm × 높이 2,030mm 재질 STS 304

소형난로



중형난로 / 대형난로

난로 할부판매 가능합니다



공양 초집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김양수 作, '눈덮인 매화 위로 달빛 흐르고 고요한 향기는 가슴에 스며드네' (140×406cm)

섬진강에서 온 봄꽃소식

김양수 '섬진강 꽃잎편지-달밤에 묵매화 피면' 展
갤러리오차드 2월 7일~3월 9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문 밖은 아직 겨울이지만 절기는 입춘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었다. 한 발 앞서 봄소식을 전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갤러리오차드는 2월 7일(수)부터 3월 9일(금)까지 개관 3주년 기념전으로 김양수 초대전 '섬진강 꽃잎편지-달밤에 묵매화 피면'을 연다.

산과 강, 나무와 새, 꽃 등 자연 속의 작은 풍경들을 선(禪)적인 화폭에 담아온 김양수 화백이 이번엔 섬진강의 매화를 화폭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20 점의 묵매화는 김 화백이 섬진강변을 거닐며 마음으로 채집한 매화들을 기억 속에서 그려낸 그림이다.

"대부분의 삶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추위와 삶의 힘겨움으로 얼어붙은 대중의 몸과 마음을 조금 빨리 녹여보고자 봄소식의 전령인 매화를 주제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눈 덮인 수묵의 매화가지 끝엔 작은 꽃송이가 달리고 꽃송이가 품은 봄의 향기는 만월에 스민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길이 4m의 대작 '눈 덮인 매화 위로 달빛 흐르고 고요한 향기는 가슴에 스며드네(140×406cm)'이다. 그동안의 김 화백이 고요함, 여백, 절제, 사유 등 선(禪)의 언어와 닿아 있는 화법(畵法)으로 삶의 깊은 곳을 그려왔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일상의 호흡이 그려낸 화법으로, 눈앞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전시의 제목 끝에만 잠시 머물러도 김 화백의 마음과 만날 수 있다. '~달밤에 묵매화 피면', 제목 끝엔 '내일'이 숨어 있다. 함께 삶에 대해 묻고 바라보고 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지 않고, 그 향기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평소 말해 온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꽃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는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겨울의 끝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통해 웅크린 각자를 위로하고, 자신을 위해 피지 않는 꽃의 모습을 통해 나와 곁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함이다. 예술이 삶에 필요한 이유를 새삼 발견하는 시간이다.

첫 개관전에 이어 3주년 기념 앵콜전으로 김 화백을 초대한 갤러리오차드의 이명지 대표는 "한국화가 위축되어 있는 국내 화단에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모던한국화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김 화백의 작품은 큰 반향이 되리라 믿는다"며 "섬진강의 매화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재현해 낸 김 화백의 묵매화는 보는 이의 가슴에 가장 먼저 봄소식으로 다가갈 것이다"고 했다.

절제된 수묵과 문장으로 선의 세계를 추구해온 김 화백의 작업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28차례에 걸친 초대전과 다수의 개인전으로 선보인 바 있다. 문의/ 02-540-8901.

김양수 화백은
1960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예술대학, 중국 중앙미술학교 벽화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동국대 예술대학과 성신여대 겸임 교수를 지냈다. 시화집으로 〈내속 뜰에도 상사화가 핀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을 출간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2월 프로그램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무장사비에 대하여'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2월 프로그램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을 기념해 3월 18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에 착안해 한국, 일본, 중국의 호랑이 미술을 선보인다.

김홍도(1745~1806 이후)의 '호랑이'를 비롯한 한 · 중 · 일의 회화, 조각, 도자기 및 옥기와 장신구에 표현된 호랑이의 의미에 대해 전시를 담당한 큐레이터가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조선의 화약무기(조선실, 2/7)', '철화백자의 멋(백자실, 2/14)', '무장사비에 대하여(서화관, 2/21)', '고조선과 한국 청동기 문화(고조선실, 2/28)'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해 큐레이터가 설명한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전시 설명 리플릿은 상설전시관 안내데스크에서 배포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행사/참여마당-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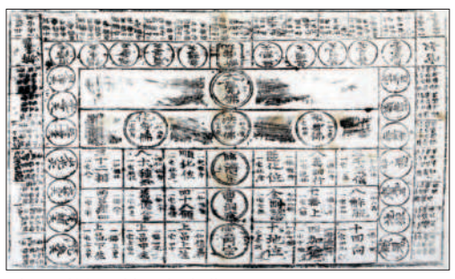
福 부르는 그림, 동아시아 歲畵 한자리에

〈세화〉

'복을 부르는 그림-동아시아 세화' 展
고판화박물관서 2월 4일~6월 3일까지

무술년 설을 앞두고 동아시아의 복(福) 관련 자료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 한선학)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2월 4일(일)부터 6월 3일(일)까지 '복을 부르는 그림-동아시아 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세화(歲畵)는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시풍속으로 복을 부르는 그림인 세화를 집안에 붙여왔다. 정월 초하루에 판화로 그린 세화나 부적을 대문이나 집안에 붙여서 액운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국, 성불도판(조선 말기)

동아시아인들의 세시풍속인 세화 판화를 소개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인들과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복과 관련 있는 한국의 세화 목판화를 비롯하여 중국의 연화(年畵 · 한 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중국화)와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 · 에도시대 발달한 풍속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베트남의 복 관련 민간판화 등 5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福'자 문자도와 장수를 기원하는 문자도,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어룡변화도와 십장생도, 부귀와 출세, 장수를 기원하는 복록수 삼성도, 책가도 판화, 집을 지키는 호랑이 판화 등 다양한 종류의 세화들을 선보임으로써 각 나라의 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세화 중에 주목되는 작품은 책거리 그림을 2폭의 판화로 제작한 책가도 세화다. 흑백 · 붉은색의 기본적인 다색판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다. 또한 '부귀다남수복강령'이란 문자가 포함된 세화와 도교적인 부적을 불교로 회통하고 있는 '백살소멸만복부', 정초에 사찰에서 행하던 성불도 놀이를 그린 '성불도 놀이판' 등 다양한 세화가 소개된다.

중국 연화 중에는 '福'자와 '壽'자 안에 고사 속 인물들을 결합하여 다색판화로 표현한 소주 도화오 지방의 대형 연화가 있으며, 우리나라 책걸이와 흡사한 하북성 무강 지방의 '부귀화개' 책가도 다색판화가 또한 눈길을 끈다.

일본의 작품으로는 돈이 달린 나무를 짊어진 일본의 복신 에비스신을 다색판화로 표현한 우키요에와 일곱명의 복신이 배를 타고 집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한 히로시게의 칠복신 우키요에 작품이 눈길을 끈다.

베트남 작품으로는 민간 판화인 동호판화와 향총판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壽'자와 '福'자를 다색판화로 표현한 동호판화와 대형 다색판화로 표현된 향총판화, 4폭의 미인화와 4폭의 화조화도 눈길을 끈다.

박재완 기자


한국 맹호도(조선). 작가미상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 목매어, 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 원 불 사

경주 낭산서 신라 왕실사찰 존재 확인

성림문화재硏, 건물지·불상 등 발굴 결과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옛 신라의 중심지였던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에서 신라왕실의 종묘 사찰이었던 황복사(皇福寺)의 실체가 확인됐다.

(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열)은 1월 31일 경주 낭산 일대 발굴현장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신라 왕실사원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석단 기단과 12지신상 기단 건물지, 회랑지를 비롯해 연못 등에서 금동불·보살입상 7점 등 10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토된 유구와 불상들은 황복사지 삼층석탑 남쪽 일원에서 발굴돼 황복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황복사는 654년(진덕여왕 8년) 의상대사(625~702)가 29세에 출가한 곳이다. 1942년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7호)을 해체 수리할 당시 나온 사리함의 명문 '종묘성령선원가람(宗廟聖靈禪院伽藍)'을 통해 신라왕실의 종묘 사찰 기능을 했을 것이라 추정돼 왔다.

문화재청은 전(傳) 황복사지의 실체 규명과 유적의 보존정비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주시 구황동 100번지 일대의 과수원과 경작지(4,628㎡)를 대상으로 1차 발굴을 진행했고, 효성왕(재위 737~742)을 위한 미완성 왕릉과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2차 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대석단 기단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 회랑 터, 담장 터, 배수로, 도로, 연못 등 신라왕실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유구들이 발견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발굴조사에서 왕실사찰의 위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구는 대석단 기단 건물지이다. 서쪽의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에 덧붙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쪽 면에는 돌을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북쪽 면에는 자연석을 쌓아 약 60m에 이르는 대석단을 구축했다. 전면 중앙부 북쪽에는 돌계단을 설치됐다.

연구원은 "대석단 기단 건물지는 내부를 회랑을 돌린 독특한 구조로 이는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람배치다. 산지 가람의 특징과 함께 구



경주 낭산 일원서 출토된 7구의 금동불입상과 보살입상. 황복사지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유구이다.

중심 건물 석단 등 확인
傳황복사지 실체 규명돼
7구 금동불·보살상 출토
7~10세기 왕실사찰 역할
"신라왕경 연구 중요자료"

품연지로 추정되는 방지 등은 이후 조성된 불국사의 조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형식"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가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거나 황복사지의 중심 건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조사에 확인된 대석단 건물지 모습.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는 십이지신상 4구(토끼·뱀·말·양)가 조각된 석재가 불규칙한 간격으로 놓여 있으며, 대석단 건물지와 함께 황복사지의 중요 전각지로 추정된다. 십이지신상은 신라 왕릉에서 확인된 십이지신상 탱석과 비교했을 때 더 발달한 형태를 보이며 김유신묘(사적 제21호)의 십이지신상과 더불어 조각미가 뛰어나다. 이 탱석의 도상(圖像)은 김유신묘와 헌덕왕(809~826) 능의 십이지신상보다 앞서며, 제작 연대는 8세기 중후반으로 보인다.

연못 등에서 나온 금동불입상과 금동보살입상 등 7점의 불상들을 비롯해 치미, 기와, 신장상 등 1000여 점의 출토 유물들도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출토 기와와 토기들은 대체로 7~9세기 유물로 당시 최고의 격조 높은 건축물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7점의 불상 유물은 황복사지가 7~10세기 신라 왕실사찰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조사와 더불어 이번에 확인된 건물의 배치나 도로 등을 통해 낭산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금의 보문동 지역도 통일신라시대의 도시계획의 하나인 방리제(坊里制,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설계)에 의한 계획도시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발굴조사는 통일신라 시대 왕실사원과 신라왕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주시와 함께 황복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IJBTC 美ALTA DB색인 학술지 선정돼

유명 종교학 자료시스템 국내 학술지 중 2번째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발행하는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공동편집장 김종욱·리처드 맥브라이드, 이하 IJBTC)〉가 미국 유명 종교학 분야 전자자료시스템에 입성하게 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최근 동국대 불교학술원 발행 IJBTC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이하 ATLA)의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Religion Database) 1월 색인수록에 선정됐다"고 1월 28일 밝혔다.

ALTA는 종교학 및 신학의 학문적 연구를 돕기 위해 권위 있는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IJBTC가 등재된 ALTA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는 종교학과 신학 분야를 주로 수록하고 있는 전자자료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 종교학과 신학분야 출판물, 저널·단행본·에세이 등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색인·초록정보가 제공되며, 18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ATLA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에는 〈Buddhist Studies Review〉, 〈Comtemporary Buddhism〉 등 불교학 관련 저명 학술지 20여개만이 수록돼 있다. IJBTC는 국내 발행 국제학술지(외국어 발행) 중 2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학보〉도 지난해부터 ATLA에 수록돼 이번 IJBTC의 신규 수록으로 동국대는 국내 대학 중 ATLA 색인 학술지 최다 보유 기관이 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 전법 방법 모색한 '전법학연구' 13호 발간

전법과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 창간된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의 〈전법학연구〉 13호가 발간됐다. 13호에는 전법학술상 수상 논문(바라밀상 1편, 전법상 2편)을 비롯해 5개 주제에 총 13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기획논문으로 '광덕 스님의 법등운동과 호법사상'을 조명한 논문 4편과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주제로 논문 4편이 게재됐다. 또한 광덕 큰스님의 제자 혜담지상 스님의 인터뷰는 광덕 큰스님의 법행과 불광운동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2030세대의 탈종교화, 청년불자의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청년전법을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법리뷰'도 수록됐다.

〈전법학연구〉는 2012년 창간됐으며, 전법과 교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논문 등을 소개해 왔다. 매년 1, 7월 2회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韓日 반가사유상 재질, 주석 함유량서 차이"

國博·오사카대, '한일 금동반가사유상' 연구서 발간

한국과 일본 소재 반가사유상이 재질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한국과 일본 소재의 반가사유상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를 수록한 〈한일 금동반가사유상-과학적 조사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오사카대학과 공동으로 2009~2012년 실시한 한국과 일본 소재의 금동반가사유상 43점(한국 소재 12점, 일본 소재 31점)에 대한 종합 조사의 결과물이다.

본문·고찰·부록으로 구성된 보고서에는 한국 소재의 12점과 일본 소재의 31점의 금동반가사유상 각각에 대한 해설, 도판, 성분분석 결과, 감마선 촬영, X선 CT 촬영, 3D 촬영 자료 등이 수록됐다.

사실상 한일 양국의 최초 반가사유상 전수 조사인 이번 연구를 통해 양식과 도상 분석과 같은 전통적 접근 방식 이외에 최신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 조사에 비중을 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과 일본 금동반가사유상의 재료적 특징을 규명한 점은 이번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 연구서에 따르면 한국 반가사유상은 바탕금속 성분이 구리-주석 합금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 반가사유상도 구리-주석 합금이 적지 않지 않으나 주석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반가사유상은 주석 함유량은 5% 이상이고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 반가사유상은 주석 함유량이 3% 정도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한국 반가사유상에는 주석 외에 납이 함유돼 있었고, 그 양도 일본보다 많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순동제(純銅製) 반가사유상이 주류를 이뤘다.

이 같은 재질 금속의 차이점은 불상 세부 형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한국 5%이상, 일본 3% 그쳐
한국계 추정 日반가사유상들
최신장비 통한 과학 분석으로
불상 국적 새로운 견해 제시

대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보고서에 수록한 고찰을 통해 "주석 또는 납의 함유량이 높은 한국에서는 세부 문양을 대부분 밀랍 성형 단계서 새겼다"면서 "순동제나 구리 함량이 높은 일본은 주조한 다음에 끌로 세부 문양을 새겨 넣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존의 추정된 국적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양식적으로 한국계로 추정됐던 나가노 간쇼인(觀松院) 반가사유상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나치(那智) 경총(經塚) 출토 반가사유상이 바탕금속 성분의 측면에서 한국 금동불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다. 후지오카 유타카(藤岡穰) 오사카대학 교수는 논고를 통해 교토 묘덴사(妙傳寺)와 효고 게이운사(慶雲寺)의 반가사유상이 한국 삼국시대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를 기획하고 총괄한 민병찬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로 한국과 일본 금동반가사유상의 재료와 제작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었다" "향후 더욱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③ 조선족 최초의 사형수 전재천

"중국 형무소로 이송돼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딸 합동 결혼식에 금목걸이 선물 원해
삼중 스님, 중국가 편지와 선물 대신 전달
대전교도소 수감중, 한중수형자 이송 신청

1996년 8월 2일 새벽 남태평양 사모아섬 부근 해상서 최악의 선상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어업기지로 회항하던 온두라스 국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서 중국 동포 선원 6명이 열악한 작업 조건과 강제 하선에 반발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 선원 11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들 모두 1996년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서 주범인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주범인 전재천은 1997년 7월 사형이 확정됐다. 이런 전재천의 운명에 극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2008년 1월 1일 무기징역으로 특별사면된 것이다.

사실 전재천은 단순 선원이 아니라 2등 항해사로서 선상 지휘부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조선족 선원들이 선장을 죽이기 위해선 기관실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자신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항해사인 전재천을 설득했다. 그가 선장하고 친하니까 기관실 문을 열어 줄 것을 부탁했다. 선원들이 그를 앞세워 배를 장악한 것이다. 그래서 부산 해경에 붙잡혀서도 그는 반란 주모자로 지목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부산구치소였다. 당시 나는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이었지만, 부산 자비사 주지를 맡고 있어 부산에 주로 많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슈가 된 큰 사건이라 나는 전재천을 만나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산구치소에서는 종교위원이 아니어서 사형수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다. 만나보니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전재천은 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장시간 통곡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그런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선해 보였다. 그는 중국서 고등학교 교사였다. 그런데 의대생인 큰딸의 학비를 교사 월급으로는 댈 엄두가 안 나 항해사가 된 것이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따금씩 성금을 모아 전해 주면서 자주 그를 면회했다. 친해지니까 자주 편지도 보냈다. 그러던 2006년 2월 27일 돈 백만 원만 빌려달라는 편지가 왔다.

"늘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삼중 스님께 기대는 것 같아 차마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오랜 망설임 끝에 말씀 올립니다. 오는 5월 1일 한날 한시에 제 고향인 중국 장춘서 저의 두딸이 합동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형수인 제가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록 딸들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제 생애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지금 딸들에게 못난 아비의 흔적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바램뿐입니다…"



2006년 5월 1일 전재천의 두 딸 결혼식 참석차 중국 장춘을 방문한 삼중 스님이 전씨의 부탁으로 큰딸에게 결혼선물인 금목걸이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의사인 전재천의 큰딸. 가운데는 작고한 모친.

전재천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다. 맏딸은 의사가, 둘째딸은 고교 교사가 됐다. 동시에 자매가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돈 백만원으로 두 딸에게 금 목걸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고 사형수이지만 아버지로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부모 노릇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전해듣고 나는 전재천의 이름을 새긴 금목걸이 두 개를 만들어 결혼식 전날 중국 장춘으로 날아갔다.

전재천의 모친은 나를 보자마자 아들 소식을 갖고 왔다고 나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모친은 "스님, 저는 매일 교회에 나가 모든 분들에게 무릎 꿇고 절을 올립니다. 영영 사람을 볼 수 없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더 속죄하고 더 기도합니다"라고 목멘 소리로 흐느끼듯 말했다. 두 딸의 합동결혼식에 전재천 대신 참석한 나는 약속대로 옥중 어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금목걸이를 전하고 내빈들께 그가 쓴 인사 편지를 읽었다. 식이 끝난 피로연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다. 일가 친천은 물론 동네이웃, 전재천의 과거 제자들까지. 그들은 나를 에워싸며 이구동성으로 "전재천은 사람을 절대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구명 운동을 통해 우리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애원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개신교계와 함께 각 기관에 탄원서를 올리고 적극적인 구명 운동에 나섰다. 지성이면 감천이었든지, 전재천은 2년 뒤인 2008년 무기수로 감형됐다.

전재천은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속죄하며 종교는 다르지만 매일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한다. 지난해 면회 갔을때 그는 마지막 소원을 나에게 피력했다. "삼중 스님 2008년부터 한중수형자 이송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저도 5년전부터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번번이 거절 당했습니다. 염치 없고 그들 볼 낯이 없지만 가족과 일가친척이 있는 고향의 형무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자식들만이라도 자주 보며 못다한 애비 노릇을 조금이나마 이 세상 떠날때까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나는 매일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 중죄인이지만 그의 바램대로 중국으로 돌아가 남은 업장을 소멸 하길 말이다.

정리=김주일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③ 대원 스님 · 우담거사

스님께서는 "참선을 하는가?" 물으시면서 "창업을 하면 목숨을 걸고 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살라"고 하시며 방석의 반을 내어주셨다. 그 이후…. 며칠 전, 눈(雪)길을 따라 나섰지만 (스님께서 국회 정각회 법문하시던 날) 눈(雪)을 말씀(言)으로 들으며 내 마음을 눈발에 담아 발자국만 남기고 왔다.



"너는 신랑, 나는 각시"하며 약속하였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며 들어오는 자식을 두었지. 부모는 자식의 손이 시릴까 걱정이고 자식은 부모의 손이 시릴까 걱정이듯이, 아가일 때에는 부모가 울타리였고 노인이 되니 자식이 울타리가 된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손, 저 손, 손맛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듯이, 사랑 또한 자식이 닮고 그 자식이 또 닮는다. 불심이 효심이요 효심이 불심이듯이, 나로 시작하여 며느리로 이어져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승만의 후예가 되기를….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길을 보며 우리는 오늘도 차도가 아닌 인도를 걷는다.



梵鐘名家 聖鐘社

성종사,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2017년 제작된 신라대종(5300관)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마모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복원

성종사가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였습니다.

감리를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종과 거의 흡사하며, 여음의 경우 오히려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sungjongsa@hotmail.com



울림이 새롭게 준비한 더 큰 울림 1월 29일 부터~
BTN불교라디오 개편



•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
월~일 06시 / 월~금 15시, 토·일 23시
• 그대에게 이르는길 운성입니다
월~금 07시 / 월~금 21시, 04시, 토 07시
• 송봉주의 음악풍경
월~금 08시 / 월~금 20시, 03시, 일 13시
•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월~금 09시 / 월~금 16시, 23시, 일 07시
New! •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월~금 10시 / 월~금 17시, 22시, 05시, 일 18시
• 원영스님의 해피타임
월~금 11시 / 월~금 18시, 02시, 토 18시
New! • 이동은의 라라랜드
월~금 낮12시 / 월~금 밤12시, 토 밤12시, 월 02시
New! • 이승윤의 유쾌한쇼
월~금 14시 / 월~금 19시, 토 13시
New! • 울림팟티
토·일 낮12시 / 일 밤12시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울림"검색 후 울림 앱을 무료다운받으세요 | BTN 불교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3270-3464~7

반 야 용 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금 액 : 450만원
■ 제조사 : 안스아트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